

글동무

# 단어 토

국어

인문사회  
편



Cheil



글동무

# 단어토

국어 | 인문사회  
편

기초



“분명히 같은 우리말인데…  
알아듣기가 힘들고, 온통 외계어 같았어요”

“교과서를 보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물어보기도 부끄러워서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어요”

여러 고비를 넘기며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합니다. 교과서의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표시해보라고 하니, 교과서의 절반이 칠해질 정도였습니다.  
언어차이로 인한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2015년 남북한어 언어번역  
애플리케이션 ‘글동무’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글동무는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글동무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탈북 학생들을 위한 학습단어집인 ‘글동무 단어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동무 단어통’은 학생들이 한 권의 책으로 중·고등학교의 학습 개념을  
배우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이 탈북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동무 단어통 프로젝트 팀 일동

탈북 청소년들의 언어격차 해소를 위한 남북한어 번역 애플리케이션  
‘글동무’를 론칭한지 벌써 4년째가 되어갑니다. 제일기획은 커뮤니케이션과  
아이디어로 솔루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탈북 학생들이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동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으로, 탈북 트라우마 및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마음동무’와 학과·진로 멘토링 ‘길동무’ 등  
탈북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실질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남북한어 번역 애플리케이션 ‘글동무’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동무 단어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동무 단어통’은 국내 최초  
탈북 학생들을 위한 학습단어집으로 학업 현장에서 탈북 학생들이  
학과 내용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글동무 단어통’이 탈북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제일기획은 ‘먼저 온 미래’인 탈북 학생들의 안정적 남한 정착을 돕고,  
나아가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의 ‘글동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 유정근



일러두기

사용된 북한어는 문화어, 중국어는 보통화(普通話)를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북한어는 대응하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했습니다.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단원명을 보여줍니다.

# 1 현대 문학

- 01. 운문
- 02. 산문

현대 문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으로, 보통 이광수의 장편 소설 '무정'을 현대 문학의 시작으로 본다. 현대 문학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고민을 담고 있다. 현대 문학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단어와 주요 설명, 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01 운문

1

현대 문학

01. 운문

### 운율

- 북 운률
- 중 韵律 (yùn lǜ)

[韻律]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 시가 음악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운율**이 있기 때문이다.
- 운율의 핵심은 반복이다. 소리, 음의 높낮이, 장단, 강약, 글자 수 등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 운율을 통해 시는 리듬감을 가지게 된다.



**Tip**  
시(운문)와 소설(산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율이다.

3

### 운문

- 북 운문
- 중 韵文 (yùn wén)

[韻文] 운율이 있는 언어로 쓰인 음악성이 있는 글.

- 운문은 시, 시조 등의 시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 운문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짧은 글에 담은

2

현재 페이지에서 어느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율

4

- 북 운률
- 중 韵律 (yùn lǜ)

[고] 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단어를,  
[중] 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 운문

중

- 북 운문
- 중 韵文 (yùn wén)

모든 단어에 표기된  
북한어와 중국어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구성과 특징 2



**Tip** 은 설명을 읽을 때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6



**Tip**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 설명에 대한 예시입니다.

7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 '아,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누구던가.' 가 바른 순서다. 그러나 도치법을 사용해 신선한 느낌을 주어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한다.

**+** 는 단어와 관련된 보충설명입니다.

8

**+**

윽니버스식 구성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1.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영웅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① 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홍길동전', '유충렬전'이 있다.
2. ② 는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신비한 사건들을 말한다.
3. 문자로 쓰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학을 ③ , 또는 적중 문학이라고 한다.
4. ④ 는 예로부터 말로 전해오는 구미진 이야기로 신화, 민담, 전설이 있다.
5. ⑤ 는 현실이나 현상을 비꼬고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학과 비슷하지만 해학과 다르게 비판적이다.
6. 고려 시대에 물건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것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쓴 소설을 ⑥ 이라고 한다.

각 단원에서 배운 단어와 내용을 빈칸을 채우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복습하기의 정답은 페이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70

각 과목에 연관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 10월 9일은 무슨 날이지?

지금 여러분의 달력을 한 번 펴보세요. 10월 9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날은 우리 연이인 한글에 대한 날입니다. 이 기념일의 이름은 바로 한글날!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조선 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말을 위한 글자입니다. 학교 살기 바쁜 일반 백성들을 위해 어려운 한자 대신 쉽게 만든 글이었죠. 지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 배우기가 무척 쉬워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과정을 쓴 책,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 제70호이기도 하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을 위한 훈민정음이 세상에 처음 발표된 날인 10월 9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71



국어

<b>1 현대 문학</b>	012
01. 운문	013
02. 산문	035
<b>2 고전 문학</b>	052
01. 운문	053
02. 산문	063
<b>쉬어가기</b>	071
10월 9일은 무슨 날이지?	
<b>3 문법</b>	072
01. 단어와 품사	073
02. 음운의 변동	091
03. 문장과 표현	107
04. 한글의 역사	124
<b>쉬어가기</b>	131
‘되’와 ‘돼’가 헷갈려요!	

<b>4 의사소통</b>	132
01. 읽기와 쓰기	133
02. 듣기와 말하기	147
<b>5 한자 성어</b>	156
01. 한자 성어	157
<b>쉬어가기</b>	167
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b>찾아보기</b>	168



# 국어

---

“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

- 주시경

**1** 현대 문학

**2** 고전 문학

**3** 문법

**4** 의사소통

**5** 한자 성어



# 1 현대 문학

## 01. 운문

## 02. 산문

현대 문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으로, 보통 이광수의 장편 소설 ‘무정’을 현대 문학의 시작으로 본다. 현대 문학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고민을 담고 있다. 현대 문학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 01 운문

## 운율 [중]

- 북 운률
- 중 韻律 (yùn lǜ)

[韻律]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 시가 음악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운율**이 있기 때문이다.
- 운율의 핵심은 반복이다. 소리, 음의 높낮이, 장단, 강약, 글자 수 등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 운율로 시는 리듬감을 가지게 된다.



Tip

시(운문)와 소설(산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율에 있다.

## 운문 [중]

- 북 운문
- 중 韻文 (yùn wén)

[韻文] 운율이 있는 언어로 쓰인 음악성이 있는 글.

- **운문**은 시, 시조 등의 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운문은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짧은 글에 담은 것이다.

## 음보율 [중]

- 중 音步律 (yīn bù lǜ)

[音步律] 끊어 읽는 말의 덩이가 일정하게 반복되며 생기는 운율.

- **음보율**의 ‘보’는 걸음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일정한 길이를 갖는 말의 덩이가 음보다.
- 보통 시조는 4음보, 민요는 3음보로 구성되어 운율을 만든다.



- 태산이 V 높다 하되 V 하늘 아래 V 뒤편이다 (4음보)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 나 보기가 V 역겨워 V 가실 때에는  
죽어도 V 아니 눈물 V 흘리오리다 (3음보)  
김소월, ‘진달래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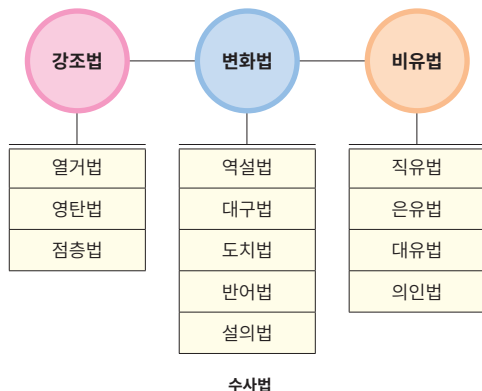


## 수사법

- 북 수사법  
중 修辞手法 (xiū cí shǒu fǎ)

[修辭法] 문장을 꾸미는 방법.

- 수사법은 크게 강조법, 변화법, 비유법으로 나눌 수 있다.
- 강조법은 느낌이나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열거법, 영탄법, 점층법 등이 있다.
- 변화법은 문장에 변화를 주어 글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생동감을 주는 방법이다. 역설법, 대구법, 도치법, 반어법, 설의법이 등이 있다.
-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느낌 등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 열거법

- 북 열거법  
중 列举法 (liè jǔ fǎ)

[列舉法] 비슷하거나 같은 구절을 여러 개 늘어놓는 수사법.

- 열거법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어휘로 내용을 강조한다.
-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반복법과는 달리 조금씩 다른 것들을 늘어놓는 표현이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별 헤는 밤'

→ '별 하나에~' 이후에 비슷한 것들이 열거되었다.

## 영탄법

- 북 느낌법  
중 感叹法 (gǎn tàn fǎ)

[詠歎法]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수사법.

- 영탄법은 평상시보다 강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 감탄사(오오, 아이고, 오호라)와 호격 조사(-아, -야, -이시여), 또는 감탄형 종결 어미(-구나, -어라) 등과 함께 쓴다.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중략)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정지용, '발열'

## 점층법

- 북 점층법  
중 递进法 (dì jìn fǎ)

[漸層法] 내용을 점점 더 크게, 높게, 강하게 표현하는 수사법.

- '점층'은 어떤 것이 더해진다는 뜻이다.
- 점층법을 사용하면 시에서 단어나 내용이 점점 더해지며 표현이 확대된다.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김기택, '멀치'

→ '파도'가 '해일'로, '부수고'가 '찢었던'으로 표현이 확대되었다.



## 역설법 [중]

중 矛盾法 (máo dùn fǎ)

[逆說法] 앞뒤가 맞지 않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부를 말이 안 되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

- 역설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물이나 관념을 함께 쓴다.
-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담기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찬란이라는 긍정의 표현과 슬픔이라는 부정의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슬픔 뒤에 다시 모란이 필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②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실제로 함박눈은 차갑지만, 역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눈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대구법 [중]

복 대구법  
중 對偶法 (duì ǒu fǎ)

[對句法] 비슷한 말의 덩이를 짝지어 나란히 놓는 수사법.

- 대구법은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운율을 만들어 낸다.
- 보통 한시나 전통적인 시에 많은 편이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에 ~하는 ~같이'의 구조가 반복된다.

## 도치법 [중]

복 자리바꿈법  
중 倒置法 (dào zhì fǎ)

[倒置法] 문장 안에서 말의 순서를 바꿔 표현하는 수사법.

- 도치법은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읽는 사람에게 신선한 느낌을 준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닦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 '아, 이렇게 슬프고도 애닦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누구던가.'가 바른 순서다. 그러나 도치법을 사용해 신선한 느낌을 주어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한다.

## 반어법 [중]

중 反語法 (fǎn yǔ fǎ)

[反語法] 속마음과 정반대로 표현하는 수사법.

- 반어법은 전달하려는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반어법은 문장 자체만 보았을 때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해당 문장과 상황을 함께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는 반어법을 사용하였다.



Tip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

반어법은 문장은 말이 되지만, 상황과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반면, 역설법은 문장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 설의법 [중]

중 設問法 (shè wèn fǎ)

[設疑法] 분명한 대답이 있거나 대답을 원하지 않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수사법.

- **설의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서 당연한 말을 의문형으로 써서 독자가 그 대답을 생각하게 한다.
- 평범하게 쓴 문장에 비해 설의법을 사용한 문장에서는 작가의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 '어디 있는가?'라는 물음에 '눈물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을 대답으로 삼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직유법 예시

1. 쟁반**같이** 둥근 달.  
(원관념: 달, 보조 관념: 쟁반)
2.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원관념: 나그네, 보조 관념: 달)  
박목월, '나그네'

### 은유법 예시

1. '나그네는 달'  
(원관념: 나그네, 보조 관념: 달)
2. 내 마음은 호수요.  
(원관념: 내 마음, 보조 관념: 호수)  
김동명, '내 마음은'

## 직유법 [중]

북 직유법  
중 明喻法 (míng yù fǎ)

### 원관념 [고]

중 本体 (běn tǐ)

### 보조 관념 [고]

중 喻体 (yù tǐ)

[直喻法]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같이, 처럼, 듯이, -인 양'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

-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낼 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빗대어 표현한 것을 **보조 관념**이라고 한다.
- **직유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등의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 은유법 [중]

북 은유법  
중 暗喻法 (àn yù fǎ)

[隱喻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A는 B이다' 또는 'B인 A'의 식으로 비유하는 수사법.

- **은유법**은 직유와 대조되는 비유법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동일한 것처럼 나타낸다.
-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은근히 빗대어서 독자들이 둘의 연관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 대유법 [중]

중 借代法 (jiè dài fǎ)

[代喻法]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징만을 사용해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
- 제유법은 한 부분을 가지고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환유법은 관련이 있는 다른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다.

- 제유법: 사람은 **뺨**만으로는 살 수 없다.  
(‘뺨’이 음식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 환유법: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강태공**들이 많다.  
(‘강태공’이 낚시꾼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 의인법 [중]

북 의인법  
중 擬人法 (nǐ rén fǎ)

[擬人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다정한 햇살 → 사람이 아닌 햇살을 사람처럼 다정하다고 표현했다.
- 별이 내게 속삭였다. → 사람이 아닌 별을 사람처럼 속삭인다고 표현했다.



## 활유법 ㉠

중 比擬法 (bǐ nǐ fǎ)

[活喻法] 살아 있지 않은 것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달려가는 시간 → 살아있지 않은 시간을 달려간다고 표현했다.
- 바다가 깊게 잠들었다. → 살아있지 않은 바다를 잔다고 표현했다.



Tip

### 의인법과 활유법의 차이

의인법은 활유법과 달리 사람의 행동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달리다’, ‘잠들다’ 등의 표현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유법이다. 반면 ‘다정하다’, ‘속삭이다’ 등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다.

## 치환 ㉠

복 치환

중 替換 (tì huàn)

[置換] 위치 등을 바꾸어 놓음.

- 시에서는 **치환**을 통해 말하고 싶은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 ‘폭포’

- 이 시에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연물인 폭포로 치환하여 표현하였다. 폭포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

## 병치 ㉠

복 병렬

중 并列 (bìng liè)

[並置/併置] 나란히 둠.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짓어 댄다**  
이 개 짓으니 저 개도 짓어  
들 건너 갈뉘 개까지 덩달아 **짓어 댄다**  
이런 개 짓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개들이 짓어 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짓어 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놓아서 운율감이 생긴다.

## 시적 허용 ㉠

중 詩的破格 (shī de pò gé)

[詩的許容]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작가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시에서만 허락되는 표현.

- **시적 허용**은 시의 운율을 만들거나 시어를 강조하여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승무’

- 문법에 맞는 표기는 ‘하얀’이지만, 시적 허용으로 ‘하이얀’을 사용하였다.
- ‘나빌레라’는 없는 말이지만 ‘나비+레라 (나비 같다)’ 혹은 ‘나비+일려나’ 등등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시적 허용이다.





씩씩



폴짝폴짝

## 의성어

- 북 소리본탄말  
중 拟声词 (nǐ shēng cí)

[擬聲語] 소리를 흉내 낸 말.

## 의태어

- 북 모양본탄말  
중 拟态词 (nǐ tài cí)

[擬態語] 모양을 흉내 낸 말.

- **의성어와 의태어**는 시의 운율을 만들며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 의성어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낚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의태어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박두진, '청산도'

+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음성상징어라고 한다.

## 어조

- 북 어조  
중 语调 (yǔ diào)

[語調] 말의 가락.

- **어조**는 시에서 사용된 언어의 말투나 목소리, 태도 등을 말한다.
- 어조를 통해 시의 분위기, 정서와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르, ㅇ, ㅁ' 등 부드러운 소리와 어조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순수하고 맑게 한다.

## -적

- 북 -적  
중 ~의 (de)

[-的]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과학적 → '과학의 바탕에서 본'이라는 뜻이다.
- 역사적 → '역사에 관한'이라는 뜻이다.
- 국가적, 일반적, 전국적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 낙관적

- 북 낙관적  
중 乐观的 (lè guān de)

[樂觀的] 세상이나 인생을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

낙관적과 낙천적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 회의적 ㄱ

- 북 회의적
- 중 持怀疑态度的 (chí huái yí tài dù de)

[懷疑的] 의심을 품는.

· **회의적** 태도는 믿고 따르는 태도가 아니라 의심을 하며 확신이 없는 태도이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신경림, '농무'

→ 이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 관조적 ㄱ

- 북 관조적
- 중 静观的 (jìng guān de)

[觀照的]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관찰하는.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김소월, '산유화'

→ 이 시는 산에서 핀 꽃을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체념적 ㄱ

- 북 체념적
- 중 死心了的 (sǐ xīn le de)

[諦念的] 희망을 버리고 바라는 것을 포기하는.

· 193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제 강점기  
시기에 쓰인 작품에는 **체념적**인 어조가 자주 등장한다.

## 냉소적 ㄱ

- 북 냉대적
- 중 讥讽的 (jī fěng de)

[冷笑的] 비웃으며 업신여기는.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은 고통 받는 식민지 시기 조선의 현실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무력하고  
**냉소적**인 어조로 암담한 조선을 비판하기만 한다.

## 성찰적 ㄱ

- 북 반성적
- 중 省察的 (xǐng chá de)

[省察的]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반성하고 살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서시'

→ 윤동주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태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바라고 있다.

## 예찬적 ㄱ

- 북 레찬적
- 중 赞扬的 (zàn yáng de)

[禮讚的] 대상의 아름답고 훌륭한 점을 크게  
드러내며 찬양하는.

님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金)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한용운, '찬송'

→ 이 시는 님을 금에 비유하고 님에게 천국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비관적 ㄱ

- 북 비관적
- 중 悲觀的 (bēi guān de)

[悲觀的] 슬프고 절망스럽게 여기는.

못 잇을 계집에 짐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값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볼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자조적 ㄱ

- 북 자조적
- 중 自嘲的(zì cháo de)

[自嘲的] 자기 자신을 비웃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자신이 비겁하다며 비웃는  
**자조적** 태도를 보여준다.

## 한 ㄱ

- 북 한
- 중 恨(hèn)

[恨]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몹시 안타깝고  
슬프거나 원망스러운 감정.

- **한**은 좌절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복잡한 감정이다.
- 한의 정서는 옛날에 서민들이 즐기던 문화에 많이 나타나고, 현대 시에도 자주 나타난다.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뼈에  
사무치는 **한**을 느끼게 됩니다.

박경리, '토지'

## 심상 ㄱ

- 북 심상
- 중 心象(xīn xiàng)

[心象/心像]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거나  
느껴지는 감각적인 인상.

- **심상**은 시어를 읽을 때 그것을 직접 겪는 것처럼 느끼는 감각이다.
- 심상을 통해 빛깔이나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 심상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다섯 가지가 있다.
- 두 가지 심상이 동시에 쓰이는 경우에는 공감각적 심상이라 한다.

시각적 심상

**어두운 방 안엔 / 바알간 숯불**이 피고

김종길, '성탄제'

청각적 심상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김억, '봄은 간다'

후각적 심상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도종환, '어떤 마을'

미각적 심상

**소태같이 쓴** 입술에 풀잎 씹힌다.

민영, '용인 지나는 길에'

촉각적 심상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공감각적 심상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 '향수'

→ '울음'이라는 청각을 '금빛'으로 시각화한 심상이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 '새파란 초생달'이란 시각을 '시리다'로 촉각화한 심상이다.



## 수미상관 구조 중

- 북 수미상접
- 중 首尾呼应的结构 (shǒu wěi hū yīng de jié gòu)

[首尾相關構造] 시에서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똑같거나 비슷하게 짝 구조.

- 수미상관 구조는 반복을 통해 시에서 운율을 만든다.
- 시의 구조를 안정되게 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 담던 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도종환, '어떤 마을'

→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수미상관 구조가 쓰였다.

## 선경후정 고

- 북 선경후정
- 중 先景后情 (xiān jǐng hòu qíng)

[先景後情] 시에서 먼저 자연이나 경치를 보여 주고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구조.

- 선경후정은 옛날에 한자로 시를 지을 때 자주 나타난 시의 구조이다.
-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 위로, 흥겨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때를 아라 피었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신흘, '방옹시여(放翁詩餘)'

→ 초장과 중장에서는 자연을 보여주고, 종장에서는 '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다.

(해석)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뜻도 정도 없는 꽃과 버들도 때를 알고 피었건만  
어떻다 우리의 임은 가고 아니 오노고.

→ 자연에 대해 먼저 말하고 화자의 감정을 말하는 선경후정의 구조다.

## 시어 중

- 북 시어, 시말
- 중 诗中的词 (shī zhōng de cí)

[詩語] 시에서 쓰인 단어.

- 길이가 긴 산문과는 달리, 운문(시)은 짧다. 따라서 짧은 표현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시어는 한번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시는 대부분 짧고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 함축 중

- 북 함축
- 중 蘊含 (yùn hán)

[含蓄] 단어나 글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음.

- 시어는 다양한 정서와 분위기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 이 시에서 '님'은 부처, 조국, 사랑하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시어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 매개체 중

- 북 매개체
- 중 媒介 (méi jiè)

[媒介體] 서로 다른 둘을 맺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 매개체란 시나 소설에서 작가가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대상이다.
- 작가는 매개체를 통해 의도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객관적 상관물 ㄱ

중 객对应物  
(kè guān duì yīng wù)

[客觀的相關物]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 또는 화자의 정서를 대신  
말해주는 대상.

- 작가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대상에  
그 감정을 이입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를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김소월, '초혼'

-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자신이 슬픈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고 있다고 한다. 이때,  
사슴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주객전도 ㄱ

복 주객전도  
중 主客顛倒 (zhǔ kè diān dǎo)

[主客顛倒] 주체와 대상의 행동이나 입장이  
뒤바뀐 것.

- 시에서는 **주객전도**를 사용하여 문학적인 상황을 만들고  
여운을 느끼게 한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신경림, '목계장터'

- 대상이 되는 하늘과 땅이 주체인 '나'(말하는 이)를  
보고 '구름과 바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는 주객전도를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중의적 표현 ㄱ

중 具多重含义的表达 (jù duō  
chóng hán yì de biǎo dá)

[重義的表現] 한번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 **중의적 표현**은 여러 의미를 한번에 나타낸다.
- 작품을 읽는 독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 어렵게 사는  
모습을 표현한 시이다. 거문고를 비유한 '기린'이  
운다는 구절은 중의적 표현이다. '거문고(또는  
화자)가 슬퍼서 운다'와 '화자가 거문고를 연주한다'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Tip

시에서의 화자란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우의적 표현 ㄱ

복 우의적표현  
중 有寓意的表达 (yǒu yù yì de biǎo dá)

[寓意的表現]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대상에  
간접적으로 빗댄 표현.

- **우의적 표현**은 추상적인 것을 은유와 의인화를 통해  
전달한다.
- '토끼와 거북이', '여우와 두루미' 등의 이솝 우화는 우의적  
표현을 사용한 동화이다.

+

'토끼전'은 당시 인간 사회의 모습을 토끼와 거북이, 용왕에  
비대어 우의적으로 나타낸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①  이라고 한다.
- ②  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쓴 시이며, 자유시는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하여 작성한 시이다.
- ‘오오’, ‘아이고’처럼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수사법은 ③  이다.
- ‘따뜻한 함박눈’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부러 말이 되지 않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은 ④  이다.
- 정해진 문법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작가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시에서만 허락되는 표현을 ⑤  이라고 한다.
- ⑥  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거나 느껴지는 감각적인 인상이다.
- 시에서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구조를 ⑦  라고 한다.

호산 胡山 ① 유문 有文 ② 용어 有語 ③ 有語 ④ 有語 ⑤ 有語 ⑥ 有語 ⑦ 有語 ⑧ 有語 ⑨ 有語 ⑩ 有語 ⑪ 有語 ⑫ 有語 ⑬ 有語 ⑭ 有語 ⑮ 有語 ⑯ 有語 ⑰ 有語 ⑱ 有語 ⑲ 有語 ⑳ 有語 ㉑ 有語 ㉒ 有語 ㉓ 有語 ㉔ 有語 ㉕ 有語 ㉖ 有語 ㉗ 有語 ㉘ 有語 ㉙ 有語 ㉚ 有語 ㉛ 有語 ㉜ 有語 ㉝ 有語 ㉞ 有語 ㉟ 有語 ㊱ 有語 ㊲ 有語 ㊳ 有語 ㊴ 有語 ㊵ 有語 ㊶ 有語 ㊷ 有語 ㊸ 有語 ㊹ 有語 ㊺ 有語 ㊻ 有語 ㊼ 有語 ㊽ 有語 ㊾ 有語 ㊿ 有語

## 02 산문

### 산문 ①

- 복 산문
- 중 散文 (sǎn wén)

[散文] 운문과 달리 리듬이나 운율이 없는 긴 글.

- 산문에는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등이 있다.
- 산문은 운문에 비해 글의 길이가 긴 편이다.

### 소설 ②

- 복 소설
- 중 小说 (xiǎo shuō)

[小說] 현실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글.

-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소설 안에는 다양한 세계와 인간의 삶이 담겨 있다.



소설은 분량에 따라서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로 나눌 수 있다.



## 일대기적 구성 [중]

- 북 일대기적
- 중 顺叙结构 (shùn xù jié gòu)

[一代記의構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구성.

- 일대기적 구성은 인물의 인생에서 특정 부분(청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등)을 서술하기도 한다.
-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구성 방식이다.

+ 대표적인 예로는 고전 소설 '홍길동전'이 있다.

## 옴니버스식 구성 [고]

- 중 选集式结构 (xuǎn jí shì jié gòu)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이야기들을 엮어 놓은 구성 방식.

- 옴니버스식 구성에서는 앞 이야기와 뒤 이야기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 각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배경도 모두 달라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옴니버스식 구성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 에피소드 [중]

- 북 일화
- 중 小故事 (xiǎo gù shì)

[episode] 사건의 줄거리 사이에 끼워 넣는 짧은 이야기. 또는 여러 작은 사건들이 서로 큰 관련이 없이 나열되는 구성 방식.

- 에피소드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주된 줄거리에 덧붙은 작은 줄거리를 의미한다.
- '어느 시기에 일어난 사건'같이 단편적인 이야기도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Tip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설의 구성 [중]

- 중 小说的结构 (xiǎo shuō de jié gòu)

### 발단 [중]

- 북 실마리
- 중 开端 (kāi duān)

### 전개 [중]

- 북 전개
- 중 发展 (fā zhǎn)

### 위기 [중]

- 북 위기
- 중 矛盾 (máo dùn)

### 절정 [중]

- 북 절정
- 중 高潮 (gāo cháo)

### 결말 [중]

- 북 결말
- 중 结尾 (jié wěi)

소설에서 작가가 사건의 줄거리를 짜임새 있게 적절히 배열한 구성.

- 소설의 구성은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일반적인 틀일 뿐, 작가에 따라 한 부분을 줄이거나 두 부분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 단계에서 끝을 맺을 수도 있다.
- 발단은 소설이 시작하는 단계로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고 인물의 성격을 알려준다.
- 전개는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갈등이 걸로 드러난다.
- 위기는 갈등이 커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단계다.
- 절정은 사건이 해결되기 직전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단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 결말은 사건이나 갈등이 해소되고 마무리되는 단계다.



Tip

소설의 구성은 영어로 플롯(plot)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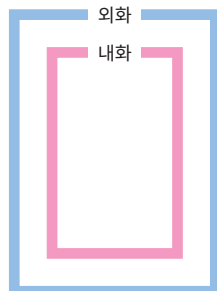


## 액자식 구성 ㉔

- 액자식 구성
- 画框式结构 (huà kuàng shì jié gòu)

[額子式構成] 액자에 그림을 넣은 것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구조.

- 액자식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외화)안에 또 다른 이야기(내화)로 구성된다. 이때 핵심은 내화이다.



- 외화와 내화에서는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 흔히 어떤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화의 서술자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외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이야기가 믿음만하다는 신뢰감을 준다.

+

액자식 구성 방식을 사용한 예로는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가 있다.

## 환몽 구조 ㉕

- 환몽구조
- 梦幻结构 (mèng huàn jié gòu)

[幻夢構造] 이야기 속 인물이 꾸는 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

- 환몽 구조는 '현실-꿈-현실'의 구성을 보인다. 작가가 전하고 싶은 주제는 주로 꿈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 꿈의 내용으로는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소망을 이루기,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기 등이 있다.
-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환몽 구조는 액자식 구성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김만중의 고전 소설 '구운몽'이 있다.

## 패러디 ㉖

- 模仿 (mó fǎng)

[parody] 원래 있는 작품을 흉내 내어 우습게 다시 쓰거나 변형시키는 일.

- 패러디는 원작이 가진 위엄을 일부러 해친다.
- 현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기도 하다.

## 의식의 흐름 기법 ㉗

- 意识流叙述 (yì shí liú xù shù)

등장인물의 머릿속 생각들을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방식.

- 의식의 흐름 기법은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서술하는 기법이다.
- 문장에 아무런 뜻이 없거나, 문법에 어긋나거나, 비논리적인 문장이 길게 늘어지기도 한다.
- 독자가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銀貨)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뒷배 앓는 뺨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으레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오. 이상, '날개'

→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다. '날개'는 생각이 나는 대로 줄줄 서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다.

## 기승전결 ㉘

- 기승전결
- 起承轉合 (qǐ chéng zhuǎn hé)

[起承轉結] 글이나 시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방식.

- 기승전결에서 '기'는 시작하는 부분, '승'은 그것을 풀어나가는 부분, '전'은 내용을 전환하는 부분, '결'은 끝맺는 부분을 뜻한다.
- 주로 한시에 나타나는 시상 전개 방식이다.
- 기승전결을 갖춘 글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

## 복선 ㉙

- 복선
- 伏笔 (fú bǐ)

[伏線]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던지지 알리는 장치.

- 독자들은 복선을 보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다.
- 복선은 사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대로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 구어체 [중]

- 북 말체, 구어체
- 중 口语 (kǒu yǔ)

[口語體]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문체.

- **구어체**는 말하듯이 쓰는 문체이다.
- 구어체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작품에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 소설이나 희곡 등에 주로 쓰인다.

- 이것을 가져가서 나누어 먹으렴. (표준어)
- 이거 가가가 노나 목으라. (방언)

## 문어체 [중]

- 북 글체, 문어체
- 중 书面语 (shū miàn yǔ)

[文語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체.

- **문어체**는 글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 공식적이거나 격식을 차린 글에서 주로 나타난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 그가 보여준 한 장의 그림이 나의 머릿속을 꿰뚫었다.

## 시점 [중]

- 북 시점
- 중 叙事视角 (xù shì shì jiǎo)

[視點]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 소설에서의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뉜다.
- 1인칭은 서술자가 주인공인지 아닌지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 3인칭은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생각까지 알 수 있는지에 따라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 같은 줄거리라도 어느 시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글의 분위기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 작가가 선택한 시점을 파악하면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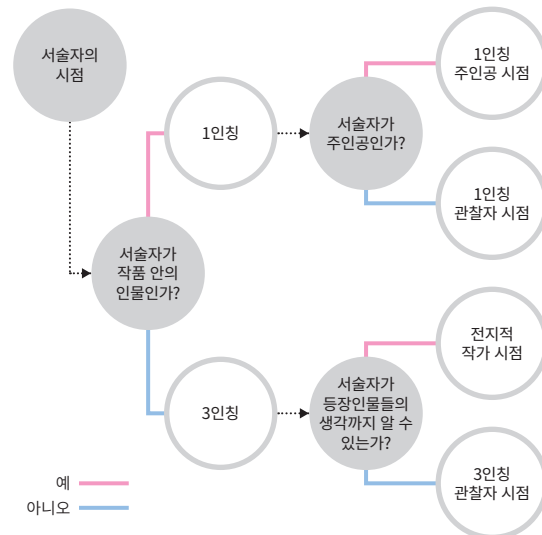
+

작가의 개성에 따라 하나의 작품에 여러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



**Tip**

작품에서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1인칭 시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3인칭 시점이다.





## 1인칭 주인공 시점 [중]

중 第一人称主人公视角  
(dì yī rén chēng zhǔ rén  
gōng shì jiǎo)

##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일리어 씹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 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 번 쪼아 보도 못 한다.

김유정, '동백꽃'

→ 소설의 주인공인 '나'의 이야기를 '나'가 직접 전하고 있다.

## 1인칭 관찰자 시점 [중]

중 第一人称观察者视角  
(dì yī rén chēng guān chá  
zhěshì jiǎo)

##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꽃은 어디서 났니? 펍 굵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엄마 드릴라구 유치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가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응,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구 줘.”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 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도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인공인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이야기를 딸인 '나'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 전지적 작가 시점 [중]

중 全知视角 (quán zhī shì jiǎo)

## 전지적 작가 시점

덕순이는 통째 짓무를 듯싶은 등어리를 건디지  
못하여 먼젓번에 쉬어 개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  
놓는다. 땀을 들여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동넛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었을 걸, 싶어...**

김유정, '땡벌'

→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생각까지 모두 알고,  
이를 서술하고 있다.

## 3인칭 관찰자 시점 [중]

중 第三人称视角  
(dì sān rén chēng shì jiǎo)

## 3인칭 관찰자 시점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황순원, '소나기'

→ 등장인물의 심리나 생각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의 행동만 서술하고 있다.



## 인물

- 북 인물
- 중 人物 (rén wù)

### 평면적 인물

- 북 평면적인물
- 중 性格不变的人物 (xìng gé bú biàn de rén wù)

### 입체적 인물

- 북 입체적인물
- 중 性格发生变化的人物 (xìng gé fā shēng biàn huà de rén wù)

### 전형적 인물

- 북 전형적인물
- 중 典型的人物 (diǎn xíng de rén wù)

### 개성적 인물

- 북 개성적인물
- 중 有个性的人物 (yǒu gè xìng de rén wù)

[人物] 소설 속에서 행동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

- **인물**은 소설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사건을 이끌고 주제를 드러낸다.
- 소설의 인물은 허구로 지어낸 것이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서의 인간 모습을 탐구해 나갈 수 있다.
-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구분할 수 있다.
- **평면적 인물**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이다.
- 작품 속 환경에 적응하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은 **입체적 인물**이다.
-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도 구분할 수 있다.
- **전형적 인물**은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성격 유형, 연령층 등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인물이다.
- **개성적인 인물**은 말 그대로 개성이 있는 인물이다. 독특한 성품이나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 인물의 특성은 명확히 구분될 때도 있지만, 한 인물 안에 다양한 특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 갈등

- 북 갈등
- 중 矛盾 (máo dùn)

### 내적 갈등

- 중 内心的矛盾 (nèi xīn de máo dù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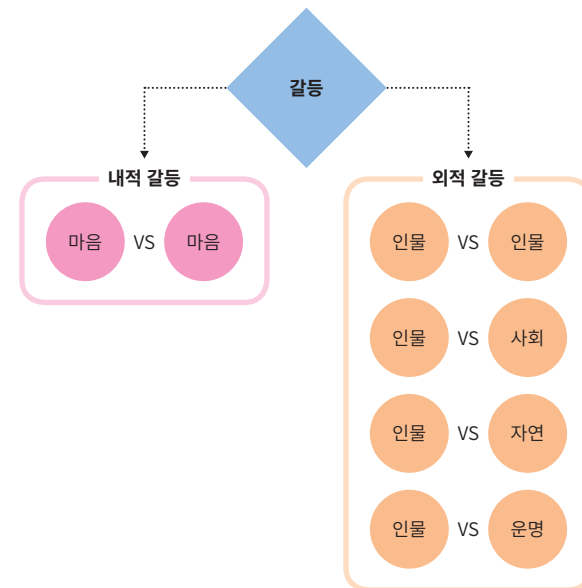
### 외적 갈등

- 중 外部环境的矛盾 (wài bù huán jìng de máo dùn)

[葛藤] 서로 처한 상황, 성격, 생각 등이 달라서 대립을 이루고 부딪치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

- 소설에서의 **갈등**은 이야기를 이끄는 중심이다.
- 독자들은 갈등이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교훈이나 감동을 얻기도 한다.
-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
-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생각이 나타나 일어나는 갈등이다.
- **외적 갈등**은 인물과 갈등하는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 ① 인물과 인물의 갈등: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 사이의 갈등
- ②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제도나 규칙에 의해 겪는 갈등
- ③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과 자연환경이 맞서는 갈등 (예)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 ④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그의 운명 때문에 생기는 상황에서 겪는 갈등





## 희곡 [중]

- 북 희곡
- 중 戏剧 (xì jù)

[戲曲] 무대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위해 쓰인 대본.

- **희곡**은 무대에서 관객에게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글이다.
-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
- 소설처럼 등장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거나, 작가가 끼어들어 설명하는 일 등이 불가능하다.
- 행동이나 대사로 인물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 희곡은 대사, 해설,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기준으로 ‘막’이 나뉘며, 여러 ‘장’이 모여 ‘막’을 이룬다.

성난 기계 차범석

**해설**

**무대 지시문**

**동작 지시문**

**대사**

때: 현대, 늦가을

곳: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무대: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다. 좌측에는… (생략)

(중략)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희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희기: 맥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 해설 [중]

- 북 소개
- 중 讲解 (jiǎng jiě)

## 지시문 [중]

- 북 지시문
- 중 舞台说明文 (wǔ tái shuō míng wén)

## 대사 [중]

- 북 대사
- 중 台词 (tái cí)

### 독백 [중]

- 북 독백
- 중 独白 (dú bái)

### 방백 [중]

- 북 방백
- 중 旁白 (páng bái)

## 단막극 [중]

- 북 단막극
- 중 独幕剧 (dú mù jù)

[解說] 희곡의 첫 부분에서 연극에 필요한 무대 장치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한 글.

- **해설**은 무대의 분위기나 등장인물, 극의 전체적인 느낌을 제시한다.

[指示文]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무대 장치나 분위기를 설명하는 글.

-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과 무대 구성과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해주는 무대 지시문으로 나뉜다.
- 특히 동작 지시문은 인물의 대사 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臺詞/臺辭] 등장인물이 하는 말.

- 희곡은 소설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극의 줄거리와 인물의 심리 상태, 성격 등을 드러낸다.
- 대사 중에는 등장인물 혼자서 말하는 **독백**, 무대 위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연기하는 **방백**이 있다.

[單幕劇] 한 개의 막으로 구성된 짧은 희곡.

- **단막극**은 길이가 짧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Tip**

드라마에서는 2부작~8부작 사이의 작품을 단막극이라 하기도 한다.



## 시나리오 국

- 북 영화문학
- 중 剧本 (jù běn)

[scenario]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창작된 대본.

- **시나리오**는 희곡과 비슷하게 대사과 지시문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 시나리오에서는 장면을 신(scene)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촬영한 후에 이어 붙인다.
-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여 희곡보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 수필 국

- 북 수필
- 중 随笔 (suí bǐ)

[隨筆] 작가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

- **수필**은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고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 소설이나 시와는 다르게 수필은 작가의 이야기이다.
- 수필의 ‘나’는 곧 작가 자신이다.
- 일기, 기행문, 감상문, 평론 등의 글쓰기는 모두 수필이다.

## 전기문 국

- 북 전기문학
- 중 传记 (zhuàn jì)

[傳記文]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성품 등을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글.

- **전기문**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 살아온 인생을 기록한 것이다.
-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전기문을 작성하는 경우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라고 한다.
- 다른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경우 전기라고 한다.
- 전기 중에 그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인 글은 평전, 여러 사람의 전기를 하나로 모은 것은 열전이라고 한다.

## 기행문 중

- 북 기행문
- 중 游记 (yóu jì)

[紀行文] 여행의 경험과 감상을 자유롭게 쓴 글.

- **기행문**은 작가에겐 여행의 기념이 되고, 독자에겐 여행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독자들은 작가의 감상과 사실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 평론 국

- 북 평론
- 중 评论 (píng lùn)

[評論] 어떤 것의 가치,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 글.

- **평론**의 대상은 영화, 소설, 시, 드라마 등 제한 없이 다양하다.

## 내재적 관점 국

- 중 仅关注文章本身的评论  
(jǐn guān zhù wén zhāng  
běn shēn de píng lùn)

[內在的觀點]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에만 집중하여 감상하는 것.

- **내재적 관점**은 작품 안에 있는 것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 시에서는 시에 나타난 어조, 운율, 이미지 등의 요소로 감상한다.
- 소설에서는 서술자, 구조, 문체, 시점 등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를 감상하기 때문에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 철저히 작품만을 감상하기 때문에 절대주의적 관점이라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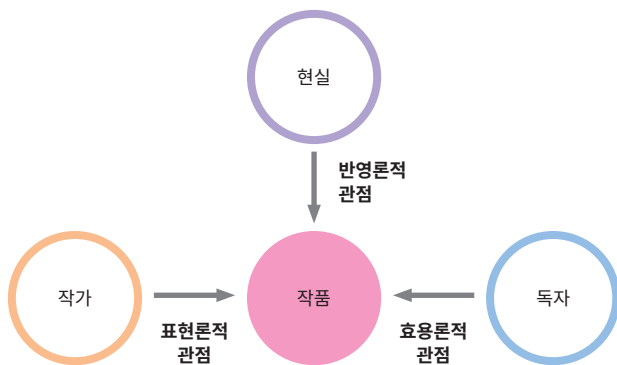


## 외재적 관점 중

중 결합文章之外其他因素的评论  
(jié hé wén zhāng zhī wài qí tā yīn sù de píng lùn)

[外在的觀點]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외부에 있는 작가, 독자, 현실 세계 등을  
생각하며 감상하는 방법.

- **외재적 관점**에는 표현론, 효용론, 반영론이 있다.
- 작품을 작가와 관련지어서 그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표현론적 관점이다.
- 같은 작품을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효용론적 관점이다.
-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현실의 시대 상황과 작품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반영론적 관점이다.
- 외재적 관점은 내재적 관점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이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1. ① 은 운문과 달리 리듬이나 운율이 없는 긴 글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등이 있다.
2. 소설의 구성은 보통 발단, 전개, 위기, ② , 결말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3. 액자에 그림을 넣은 것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③ 이라고 한다.
4. ④ 이란 등장인물의 머릿속 생각들을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5. 갈등은 서로 처한 상황, 성격, 생각 등이 달라서 대립을 이루고 부딪치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로 ⑤ 과 ⑥ 이 있다.
6. ⑦ 은 작가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7.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에만 집중하여 감상하는 것을 ⑧ , 또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한다.

① 사공 ② 원통 ③ 액자나 구슬 ④ 의식의 흐름 기법 ⑤ 내적 갈등(외적 갈등)  
⑥ 외적 갈등(내적 갈등) ⑦ 수류 ⑧ 내적 갈등



# 2 고전 문학

## 01. 운문

## 02. 산문

고전 문학은 19세기 중후반 이전의 작품을 말한다. 고전 문학에는 고려 가요, 향가, 시조, 가사 등이 있다. 고전 문학은 한자로 된 작품이 많고, 작품을 설명하는 단어에도 낯선 단어가 많다. 고전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어들을 알아보자.



# 01 운문

## 고려 가요

- 북 고려가요
- 중 高麗歌謠 (gāo lì gē yáo)

[高麗歌謠] 고려 시대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우리말 노래.

- **고려 가요**는 평민들의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과 당시 사회가 잘 반영되어 있다.
- 절이 나뉜 형식으로 대부분 후렴구가 있다.
- 속요라 부르기도 하고, 길이가 길어서 장가라고도 한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후렴구

날러는 엇디 살라 하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후렴구

...  
작자 미상, '가시리'



## 경기체가 固

- 경기체가
- 景几体歌 (jǐng jǐ tǐ gē)

[景幾體歌] 고려 시대 중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귀족들이 부르던 노래.

- 경기체가'는 당시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고려 가요를 보고, 양반들이 만든 노래이다.
- 시가의 끝 구절에 '경(景)이 멋지다니' 또는 '경기하어(景幾何如)'라는 감탄 구절이 나타나서 경기체가라고 한다.
- 선비의 배움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唐漢書(당한서) 莊老子(장로자) 韓柳文集(한류문집)  
李杜集(니두집) 蘭臺集(난타집) 白樂天集(백락천집)  
毛詩尙書(모시상서) 周易春秋(주역춘추)  
周戴禮記(주대례기)

위 註(주)조쳐 내 외운 景(경) 이 멋지다니잇고.  
葉(엽) 太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백여권)  
太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백여권)  
위 歷覽(력남) 景(경) 이 멋지다니잇고  
한림제유, '한림별곡'

(해석)

당서와 한서, 장자와 노자, 한유와 유충원의 문집  
이백과 두보의 시집, 난대령사의 시문집, 백낙천의 문집  
시경과 서경, 역경과 역사서, 대대례와 소대례(예기)  
아, 주(註)마저 줄곧 외우는 모습이 그 어떠합니까?  
(엽) 태평광기 사백여 권, 태평광기 사백여 권  
아, 두루 읽는 모습이 그 어떠합니까?

→ 여러 가지 책을 읽은 선비의 모습을 노래한 시이다.



Tip

문집이란 시나 문장을 엮은 책을 말한다.

## 향가 固

- 향가
- 乡歌 (xiāng gē)

[鄉歌] 신라 시대 평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시가.

- 향가를 쓴 사람은 신라 시대 화랑이나 불교의 승려이다.
- 신라 시대에는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는 이두와 향찰로 향가를 표기하였다.
- 향가는 노랫말에 관련된 설화가 함께 전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善化公主主隱(선화공주주은)  
他密只嫁良置古(타밀지가량치고)  
薯童房乙(서동방을)  
夜矣卯乙抱遺去如(야의묘을포견거여)  
서동, '서동요'

(해석, 양주동 옮김)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결혼하고  
맛동서방(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 '서동요'는 백제의 서동(백제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 공주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

**화랑이란?** 신라 시대에 있었던 단체이다. 젊은 청년들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닦고 사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



## 한시

- 북 한시
- 중 汉字诗 (hàn zì shī)

## 악장

- 북 악장
- 중 乐章 (yuè zhāng)

## 가사

- 북 가사
- 중 歌辞 (gē cí)

## 민요

- 북 민요
- 중 民谣 (mín yáo)

### [漢詩] 한자로 쓰인 시.

- **한시**는 한글이 없던 때에 한자로 쓰인 시로 한국 문학에 속한다. 한글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이 한국인만의 생각과 감정, 정서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 [樂章] 조선 시대 초 궁궐에서 행사 때 부르던 노래의 가사.

- **악장**은 조선 시대 궁중 연회나 제사와 같은 궁궐의 공식 행사에서 불리던 노랫말이다.
- 작품에 따라 고려 가요, 경기체가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 대표적인 악장으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있다.

### [歌辭] 조선 시대에 나타난 시조와 산문 문학의 중간 형태.

- **가사**의 내용은 산문처럼 줄거리가 있지만 형태는 시처럼 운율이 있다. 4음보율과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길이는 제한이 없다.
- 가사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각이 담겨 있다. 작가나 주제 의식에 따라 사대부 가사, 규방 가사, 서민 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대표적인 가사에는 정철의 ‘사미인곡’과 박인로의 ‘누항사’ 등이 있다.

### [民謠] 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

- **민요**는 만든 이가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 음이나 가사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 민요는 민족의 삶과 정서가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 여음

- 북 여음
- 중 余音 (yú yīn)

### [餘音] 시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말이나 소리.

- **여음**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주로 흥겨움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 여음이 두 단어 이상이 되어 구를 이룰 때는 여음구, 조흥구라고 하기도 한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두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어 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리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작자 미상, ‘청산별곡’

→ 여음은 의미는 없지만 ‘ㄹ’과 ‘ㅇ’이 반복되어 경쾌한 리듬감을 준다.

## 시조

- 북 시조
- 중 时调 (shí diào)

### 초장

- 북 초장
- 중 初章 (chū zhāng)

### 중장

- 북 중장
- 중 中章 (zhōng zhāng)

### 종장

- 북 종장
- 중 終章 (zhōng zhāng)

### [時調] 고려 시대 말부터 발달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 **시조**는 기본적으로 3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행부터 **초장·중장·종장**이라 한다.
- 초기에는 양반과 사대부가 주로 만들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 기생이나 평민들도 시조를 지었다.
- 사대부의 유교 이념이나 남녀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가 있다.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해석)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 내어,  
봄바람 같은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임 오시는 날 밤이 되거든 굶이굽이 퍼리라.



## 평시조 ㉠

- 북 평시조
- 중 平时调 (píng shí diào)

[平時調] 초장, 중장, 종장의 기본적인 형식의 시조.  
단시조라고도 함.

- **평시조**는 3·4조의 음수율, 4음보 체계,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종장의 첫 번째 구는 반드시 3음절이어야 한다.
- 평시조는 주로 양반 계층이 향유하였다.

## 사설시조 ㉠

- 북 사설시조
- 중 辞说时调 (cí shuō shí diào)

[辭說時調] 시조의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 시조.

-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시대 상황이 바뀌어 기녀, 중인,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시조를 지으면서 나타났다.
- 기존의 시조들은 사대부들이 주로 썼고, 주제는 주로 유교의 이념이었다.
- 반면, 사설시조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잘못된 권력을 풍자하는 이야기 등 다양하고 일상적이다.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랴.  
뒤편 님 오며는 꼬리를 뒹뒹 치며 뒹락 나리 뒹락  
반겨서 내닷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강강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왼발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작자 미상,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해석)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이 개처럼 알미운 놈이  
있을까.  
미운 임이 오면 꼬리를 뒹뒹 치면서 뛰어들었다 내리  
뛰었다 하면서 반겨 맞이하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강강  
짓어서 돌아가게 한다.  
왼발이 그릇그릇 (아무리 많이) 남을지라도 너 먹일 줄  
있으랴?

→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중장이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 연시조 ㉠

- 북 연시조
- 중 联时调 (lián shí diào)

[聯詩調] 평시조 여러 편이 묶여 여러 연으로 구성된  
시조.

- **연시조**란 짧은 평시조에 담기 힘든 주제를 담기 위해 여러  
평시조를 연결하여 표현한 시조이다.
- 연시조를 이루는 하나의 평시조는 '수'라고 부른다.
- 주로 유교의 이념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다.
- 연시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항의 '도산십이곡',  
정철의 '훈민가' 등이 있다.

청산(淸山)은 옛데ㅎ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옛데ㅎ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淸) 호리라.  
<제11곡>

우부(愚夫)도 알며 ㅎ거니 꺾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ㅎ시니 꺾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제12곡>

이항, '도산십이곡'

(해석)

푸른 산은 어찌하여 변함없이 푸르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저 물같이) 그치는 일 없이, (저 산같이) 영원히  
푸르리라.  
<제11곡>

어리석은 자도 알아서 행하니 학문의 길이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성인도 다하지 못하는 법이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든 어렵든 간에 학문을 닦는 생활 속에 늙는 줄을  
모르겠다.  
<제12곡>

→ 사대부로서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려는  
의지를 12수의 연시조로 노래하였다.



## 연군지정 固

중 戀君之情 (liàn jūn zhī qíng)

[戀君之情] 임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 연군지정이란 신하의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 고전 문학에서는 화자를 여성으로 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임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시적 표현을 크게 하기 위해서이다.
-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철의 가사인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 있다.

...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덕 족족 안니다가  
 향 므된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라  
 정철, ‘사미인곡’

(해석)

...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마다 앓고 다니다가  
 향기가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으리라.  
 임께서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가사이며 이때 ‘임’은  
 당시 임금을 비유한 대상이다.

## 우국충절 固

북 우국충정

중 忧国忠节  
 (yōu guó zhōng jié)

[憂國忠節] 나라일을 고민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깨끗한 태도.

- 우국충절은 옛 선비들에게 강조되던 삶의 태도이다.
- 우국충정, 우국진충도 같은 뜻이다.

## 물아일체 固

중 物我一体 (wù wǒ yì tǐ)

[物我一體] 자연물과 인간이 하나가 된 상태.

- 물아일체란 자연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자연이 된 상태를 말한다.

...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있고,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흐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정극인, ‘상춘곡’

(해석)

엇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흐르도다.  
 칼로 말아(마름질하여)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거니 흥겨움이야 다르겠는가?

## 향유층 固

북 향유자

중 享受人群  
 (xiǎng shòu rén qún)

[享有層] 누리거나 함께 나누는 사람들.

- 고전 문학 작품은 시조, 가사, 민요 등의 장르에 따라 **향유층**이 뚜렷이 구분되기도 한다.
- 시조의 향유층은 사대부로 한정되어 있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중인과 평민으로 확장되었다.
- 민속 문학은 향유층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 ① 는 신라 시대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시가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동요’가 있다.
- ② 는 조선 시대에 나타난 시조와 산문 문학의 중간 형태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이념을 담고 있다.
- 시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말이나 소리인 ③ 은 흥겨움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는 고려 시대 말부터 발달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초장-중장-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자연물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자연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자연이 된 상태를 ⑤ 라고 한다.

해설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02 산문

### 군담 소설

북 군담소설, 군담  
중 军谈小说  
(jūn tán xiǎo shuō)

[軍談小說] 전쟁을 배경으로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

- 군담 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 군담 소설은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주로 한글로 쓰였다.
- 전쟁에서 패배한 아픔을 소설 속 승리를 통해서 치유하고자 한 욕구가 나타난다.

### 영웅 소설

북 영웅담  
중 英雄小说  
(yīng xióng xiǎo shuō)

[英雄小說]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영웅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

-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는 **영웅 소설**이 많다. 현재까지도 유명한 ‘홍길동전’, ‘전우치전’, ‘유충렬전’은 모두 영웅 소설이다.
- 영웅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영웅 일대기 구조’라 한다.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고난과 시련, 조력자와의 만남, 위기 극복, 행복한 결말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 우연성

- 북 우연성
- 중 偶然性(ǒu rán xìng)

[偶然性]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성질.

- **우연성**은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특별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

‘심청전’에서 갑자기 심청이가 뱃사공들과 마주치거나 심청이를 다시 만난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장면들은 우연성을 보여준다.

## 전기적 요소

- 북 전기적요소
- 중 传奇的要素(chuán qí de yào sù)

[傳奇的要素]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신비한 사건들.

- **전기적 요소**에서 ‘전기’란 기이한 것을 기록한다는 의미이다.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인간이나 자연물이 내용의 중심이 된다.
- 용궁, 천상, 귀신과의 사랑 등의 다양한 전기적 요소가 있다.
- 신화나 민담, 전설에도 많이 나타난다.

## 편집자적 논평

- 북 편집자적논평
- 중 作者的直接评论(zuò zhě de zhí jiē píng lùn)

[編輯者的論評]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것.

-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 주로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 편집자적 논평은 보통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일어난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겸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 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신재효, ‘토별가’

→ ‘토끼를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다’며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다.

## 구비 문학

- 북 구전문학
- 중 口传文学(kǒu chuán wén xué)

### 적층 문학

- 중 口承文学(kǒu chéng wén xué)

## 설화

- 북 이야기
- 중 口传故事(kǒu chuán gù shì)

### 신화

- 북 신화
- 중 神話(shén huà)

### 민담

- 북 민담
- 중 民间故事(mín jiān gù shì)

### 전설

- 북 전설
- 중 传说(chuán shuō)

[口碑文學] 문자로 쓰이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

- **구비 문학**은 말로 전해지기에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창작자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제목과 소재임에도 다르게 전개되는 이본이 많다.
- 신화, 민담, 전설 등은 모두 구비 문학에 속한다.
- 구비 문학은 글로 기록한 기록 문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다. 층층이 쌓아왔다는 의미에서 **적층 문학**이라고도 한다.

[說話] 예로부터 말로 전해오는 꾸며진 이야기.

- **설화**는 전해져오는 이야기로 신화, 민담, 전설이 있다.
- **신화**는 신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신성한 이야기로, 주로 나라를 세우는 건국 신화가 많다.
- **민담**은 뚜렷한 시간과 공간 배경이 없이 평범한 주인공이 등장하며 흥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는 이야기로, 특정한 연못이나 바위 등 구체적인 장소나 사물이 증거물로서 전해 내려온다.



## 판소리 [중]

- 북 판소리
- 중 板索里 (bǎn suǒ l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북 장단에 맞춰 대사와 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노래.

- 판소리를 하는 사람을 소리꾼,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 판소리는 소리꾼의 노래인 창, 말이나 소리로 장면을 설명하는 아니리, 춤사위나 몸짓인 발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고수나 관중은 판소리 중간에 자유롭게 추임새를 넣을 수 있다.



판소리 중에는 ‘춘향전’이나 ‘심청전’처럼 글로 옮겨진 것이 전해지는데, 이를 판소리게 소설이라고 한다.

## 탈춤 [중]

- 북 탈춤
- 중 假面舞 (jiǎ miàn wǔ)

탈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춤추며 서로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극.

- 탈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의 공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다. 관중과 무대의 구분이 거의 없어서 관중들도 쉽게 호응하고 즐길 수 있다.
- 탈춤은 지역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양반이나 지배층을 풍자하고 비웃는 내용이 많다.
- 대표적인 탈춤으로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복청 사자놀이, 봉산 탈춤 등이 있다.



## 해학 [중]

- 북 해학
- 중 諧謔 (xié xuè)

[諧謔] 현실이나 현상을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 해학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해학은 인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실수나 약점을 감싸주거나 독자가 동정을 느끼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흥부전’에서는 가난한 흥부의 생활 모습을 웃음이 나도록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 풍자

- 북 풍자
- 중 讽刺 (fěng cì)

[諷刺] 현실이나 현상을 비꼬고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 **풍자**는 해학과 비슷하지만, 해학이 긍정적인 대신 풍자는 비판적이다.
- 풍자는 현실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인물을 비꼬는 것으로 조롱하거나 비판하여 웃음이 나게 한다.

‘흥부전’에서는 가난한 흥부를 괴롭히는 부자 놀부를 풍자하며 웃음거리로 만든다.

## 희화화

- 북 희화화
- 중 诙谐 (huī xié)

[戲畫化] 인물의 성격이나 생김새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우습게 표현하는 방법.

- **희화화**에는 풍자와 해학이 있으며,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 탈춤이나 판소리 등 평민들이 즐기던 민속 문화에는 자신들을 지배하던 양반들을 희화화한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 가전체

- 중 假传体 (jiǎ zhuàn tǐ)

[假傳體] 고려 시대에 물건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것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쓴 소설.

- **가전체**는 주인공이 되는 물체의 쓰임새,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도 함께 이야기한다.
- 가전체는 보통 사람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가전체의 예시로는 술을 의인화하여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제로 삼은 ‘국순전’이나 엽전을 의인화하여 재물을 탐내는 사람과 사회를 풍자하는 ‘공방전’ 등이 있다.

## 설

- 북 설
- 중 说 (shuō)

[說] 고전 수필 중에서,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겪은 글쓴이의 깨달음을 알리고자 쓴 글.

- **설**은 사물을 설명하는 부분과 자신의 시각으로 의견을 말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 설에서는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는 우의적인 표현이 주로 쓰인다.
- 대표적인 설로는 이규보의 ‘슬견설’, ‘경설’ 등이 있다.

## 전

- 북 전
- 중 传 (zhuàn)

[傳] 어떤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의 형식.

- **전**은 실제로 있는 인물에 대해 쓰는 글이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전도 있다.
- 고전 소설의 많은 수가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식에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 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대표적인 전으로는 ‘홍길동전’, ‘허생전’ 등이 있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1.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영웅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①  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홍길동전’, ‘전우치전’이 있다.
2. ②  는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신비한 사건들을 말한다.
3. 문자로 쓰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학을 ③ , 또는 적층 문학이라고 한다.
4. ④  는 예로부터 말로 전해오는 꾸며진 이야기로 신화, 민담, 전설이 있다.
5. ⑤  는 현실이나 현상을 비꼬고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학과 비슷하지만 해학과 다르게 비판적이다.
6. 고려 시대에 물건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것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쓴 소설을 ⑥  라고 한다.

해학 ⑤ 우유 ⑤ 해학 ⑦ 해학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10월 9일은 무슨 날이지?

지금 여러분의 달력을 한 번 펴보세요. 10월 9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날은 우리 언어인 한글에 대한 날입니다. 이 기념일의 이름은 바로 한글날!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조선 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말을 위한 글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일반 백성들을 위해 어려운 한자 대신 쉽게 만든 글이었죠. 지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배우기가 무척 쉬워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과정을 쓴 책,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 제70호이기도 하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을 위한 훈민정음이 세상에 처음 발표된 날인 10월 9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 명사

- 북 명사
- 중 名词 (míng cí)

[名詞]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명사의 ‘명’은 이름을 뜻한다.
- 특별히 정해진 사물에만 쓰이는 것은 고유 명사,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것은 보통 명사라고 한다.
- 혼자서 쓰이는 것은 자립 명사, 꾸미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존 명사라고 한다.

- 고유 명사의 예: 김연아(사람 이름), 대한민국(나라 이름)...
- 보통 명사의 예: 사과, 강아지, 지우개, 사랑...
- 자립 명사의 예: 김연아, 사과, 강아지...
- 의존 명사의 예: 것, 수, 뿐, 대로, 만, 채...

## 대명사

- 북 대명사
- 중 代词 (dài cí)

[代名詞]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

-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나뉜다.
- 인칭 대명사의 예: 나, 너, 우리, 그, 그녀...
- 지시 대명사의 예: 여기, 저기, 거기, 이것, 저것, 무엇...

## 수사

- 북 수사
- 중 数词 (shù cí)

[數詞]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수사는 ‘하나, 둘, 셋...’ 등의 수를 나타내는 기수와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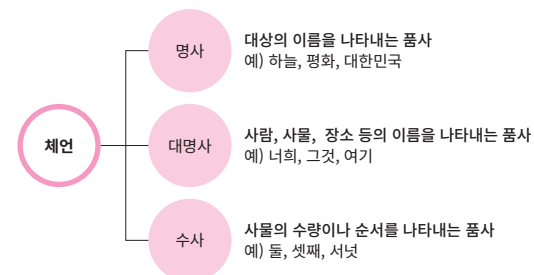
기수와 서수

## 체언

- 북 체언
- 중 体词 (tǐ cí)

[體言] 문장 안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아우르는 말.

- 품사 중에 문장의 주체가 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체언이라고 한다.



## 조사

- 북 조사
- 중 助词 (zhù cí)

[助詞]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이 다른 말과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더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말.

- 조사는 혼자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붙여서 사용한다.
- 서술격 조사 ‘-이다’를 빼고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조사는 앞말의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로 나뉜다.

조사의 예: 이/가, 을/를, 와/과, 이랑, 도, 마저, 까지...

## 관계언

- 중 连词 (lián cí)

[關係言]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이르는 말로, 조사가 속함.

- 관계언은 주로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언의 예: 는, 에게, 처럼...

+

관계언에 속한 품사는 조사 하나뿐이다.



## 동사 [중]

- 북 동사
- 중 动词 (dòng cí)

[動詞]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동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
- 동사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있다.

- 자동사의 예: 소년이 달리다, 꽃이 피다, 해가 뜨다...
- 타동사의 예: 밥을 먹다, 잠을 자다, 계단을 오르다...

목적어

+

어간은 동사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바뀌는 부분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p.79, 80 참고)

## 형용사 [중]

- 북 형용사
- 중 形容词 (xíng róng cí)

[形容詞] 사물의 모양과 성질을 설명하거나 꾸며 주는 말.

-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
-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사물의 성질이나 시간, 수량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시 형용사로 나뉜다.

- 성상 형용사의 예: 예쁘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길다...
- 지시 형용사의 예: 이리하다, 그러하다, 어떻다...



Tip

동사와 형용사 구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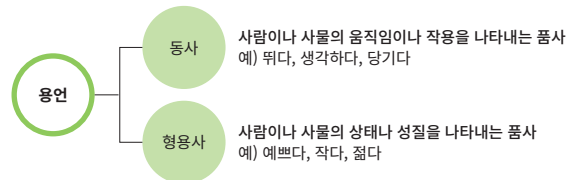
1. 기본형에 ‘-는’, ‘-니’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2.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이다.
3. 진행의 의미인 ‘-고 있다’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이다.

## 용언 [중]

- 북 용언
- 중 用言 (yòng yán)

[用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를 아우르는 말로, 동사와 형용사가 속함.

-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미는 ‘-다, -고, -니, -어서’처럼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 용언의 여러 모양 중에서 어미가 ‘-다’인 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Tip

국어사전에서 용언을 찾을 때는 ‘-다’가 붙은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

예) 크다, 크고, 크니, 커서... → 기본형 ‘크다’

## 관형사 [중]

- 북 관형사
- 중 冠形词 (guān xíng cí)

[冠形詞] 체언의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는 말.

-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는 ‘새’라는 관형사가 붙어서 ‘자동차’의 모양, 성질, 상태가 분명해진다.
- 관형사에는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성상 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다.

- 성상 관형사의 예: 옛, 새, 온갖...
- 지시 관형사의 예: 이, 그, 저...
- 수 관형사의 예: 한, 두, 세, 네...

+

수 관형사 중에는 ‘다섯, 여섯, 일곱’과 같이 수사와 모양이 똑같은 것이 있다.



Tip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명사나 수사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예) 그는 키가 커. → 조사와 결합했기 때문에 대명사  
그 사람은 키가 커. → ‘그는 사람’과 같이 조사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관형사



## 부사

- 북 부사  
중 副词 (fù cí)

[副詞]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말을 꾸며 주는 말.

- **부사**는 용언(동사와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준다.
- ‘똑똑’, ‘강충강충’처럼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는 말들도 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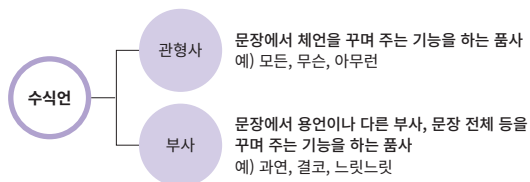
부사의 예: 잘, 매우, 오늘, 못, 안, 과연, 그러나...

## 수식언

- 북 수식언  
중 修饰语 (xiū shì yǔ)

[修飾言]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 주는 품사를 아우르는 말로, 관형사와 부사가 속함.

-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 준다.



## 감탄사

- 북 감탄사  
중 感叹词 (gǎn tàn cí)

[感歎詞]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

-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의지를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감탄사의 예: 앗, 어머, 아이고, 아, 응, 예, 글썄...

## 독립언

- 북 독립언  
중 独立句 (dú lì jù)

[獨立言] 문장 안에서 다른 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쓰이는 품사를 아우르는 말로, 감탄사가 속함.

-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다.
- 독립언이 있던 문장에서 독립언을 빼도 문제가 없다.

앗! 실수로 숙제를 안 가져왔다.  
└─ 독립언

→ 실수로 숙제를 안 가져왔다.

## 형태소

- 북 형태소  
중 词素 (cí sù)

[形態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형태소**는 더 쪼개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라진다.
- ‘사과’를 ‘사’와 ‘과’로 나눌 때 각각의 ‘사’와 ‘과’에는 ‘사과’와 관련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과’는 더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 형태소는 실제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사과를 먹었다.

-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사과
-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예) 을/를, 먹-, -었-, -다
- 실질 형태소: 실제로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  
예) 사과, 먹-
- 형식 형태소: 문법적 의미만을 지니는 형태소  
예) 을/를, -었-, -다

## 어간

- 북 말줄기  
중 词干 (cí gàn)

[語幹]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분.

- **어간**은 용언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어미와 짝을 이룬다.
- 어간은 용언(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을 활용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 ‘먹다’의 예를 들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와 같이 활용된다.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먹-’이 어간이다.



Tip

**활용이란?**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p.81 참고)



## 어미

- 북 어미  
중 词尾 (cí wěi)

[語尾] 어간 뒤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

- **어미**는 용언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어간과 짝을 이룬다.
- 어미는 용언(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을 활용했을 때 변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 ‘먹다’의 예를 들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와 같이 활용된다. 이때 변하는 부분인 ‘-고, -으니, -어서’가 어미이다.

사과를 **먹었다**.

‘먹-’은 어간, ‘-었-’은 ‘-다’ 앞에 들어가는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이다.

## 어근

- 북 말뿌리  
중 词根 (cí gēn)

[語根] 단어를 만들 때 실제로 뜻을 나타내는 중심 부분.

- **어근**은 단어 형성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접사와 짝을 이룬다.
- 어근은 같은 어근과 함께 쓰이기도 하고, 접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 예를 들어, ‘햇사과’는 ‘햇-’과 ‘사과’로 나뉜다. 이때 더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과’가 어근이다.



Tip

**어근과 어간의 구분**

- 어근은 실제 의미를 지니며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접사와 함께 쓰인다.
-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미와 함께 쓰인다.

## 접사

- 북 덧붙이  
중 词缀 (cí zhuì)

[接辭]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 **접사**는 단어 형성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어근과 짝을 이룬다.
- ‘햇사과’에서 ‘햇-’은 ‘그 해에 새로 난’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로, 혼자서 쓰일 수 없다.
- 접사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먹-’+‘-보’ → 먹보(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 접사

‘먹다’라는 동사의 어근 ‘먹-’에 접사 ‘-보’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 접사에는 단어 앞에 붙는 접두사와 단어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다.

접두사의 예: 햇-, 맨-, 날-, 꽃...

접미사의 예: -보, -꾸러기, -쟁이, -것...

## 활용

- 북 활용  
중 词缀变化 (cí zhuì biàn huà)

[活用] 문법에서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붙어 다양한 의미를 만드는 일.



- 동사 ‘찍는다’를 쓸 때 하나의 어간 ‘찍-’에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 ‘찍어, 찍어서, 찍는, 찍은, 찍고...’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이처럼 용언(동사, 형용사)을 쓸 때 어미를 붙여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 단일어 [단어]

중 单纯词 (dān chún cí)

[單一語] 하나의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 **단일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예를 들어, '사과'는 '사'와 '과'로 나누면 각각이 아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어이다.

단일어의 예: 사과, 하늘, 나무, 맑다...

## 복합어 [단어]

복 합친말  
중 复合词 (fù hé cí)

합성어 [단어]

복 합성어  
중 合成词 (hé chéng cí)

파생어 [단어]

복 파생어  
중 派生词 (pài shēng cí)

[複合語]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합쳐지거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

-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
- **합성어**란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합쳐진 것이다.
- **파생어**란 '어근+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합성어의 예: 돌다리(돌+다리), 밤낮(밤+낮), 손발(손+발), 오르내리다(오르+내리다)
  - 파생어의 예: 쫓고추(쫓+고추), 헛고생(헛+고생), 장난꾸러기(장난+-꾸러기), 먹이(먹+-이)

## 고유어 [단어]

복 고유어  
중 固有词 (gù yǒu cí)

[固有語] 우리말에 원래부터 있던 말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말.

- **고유어**는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과 함께 발달한 언어이다.
- 고유어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다.

고유어의 예: 어머니, 하늘, 바람, 아름답다...



**Tip**

고유어는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 한자어 [단어]

복 한자말  
중 汉字词 (hàn zì cí)

[漢字語]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

-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뜻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 한자어는 고유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자어의 예: 부모(父母), 연필(鉛筆), 시계(時計), 책상(冊床)...

## 외래어 [단어]

복 들어온 말  
중 外来词 (wài lái cí)

[外來語] 다른 나라에서 빌려와 우리말처럼 쓰는 말.



- **외래어**는 그 말을 대신할 만한 고유어나 한자어가 없는 말로,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
- 외래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외래어의 예: 텔레비전, 배추, 송골, 컴퓨터, 초콜릿, 빵...



**Tip**

외래어와 달리 외국어는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다.  
예) 스커트(skirt) → 치마, 테이블(table) → 식탁

## 비속어 [단어]

복 속된 말  
중 俚语 (lǐ yǔ)

[卑俗語] 예절에 어긋나거나 품위 없는 속된 말.

- **비속어**는 보통 듣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 은어 중

- 북 은어
- 중 暗語 (àn yǔ)

[隱語] 어떤 집단이나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

- 은어는 주로 같은 환경이나 비슷한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이는 집단 언어,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특수어도 은어에 포함될 수 있다.

## 표준어 중

- 북 문화어
- 중 标准话 (biāo zhǔn huà)

[標準語] 한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사용하기로 정한 말.

-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한다.
- ‘교양 있는 사람들’, ‘현대’, ‘서울말’이라는 3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표준어가 아니다.
- 교과서, 책, 신문, 방송 등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한다.
- 표준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하기 쉽다.

+

표준어는 맞춤법과 표준 발음의 대상이 된다.

## 방언 중

- 북 사투리
- 중 方言 (fāng yán)

[方言] 한 언어 안에서, 지역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나뉜 말. 사투리라고도 함.

- 방언은 한 언어 안에서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다.
- 지역이 달라 생겨난 방언을 지역 방언, 세대, 성별, 직업 등 지역 외의 원인으로 생겨난 방언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 지역 방언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언어 자료이다. 지역 간 서로의 거리가 멀수록 방언의 차이가 더 크다.
- 같은 방언을 쓰는 사람들끼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지역 방언의 예:

-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이를 울리면 안 되지. (표준어)
- 얼라가 말을 안 듣는다 해가 아를 울리면 안 되제. (경상도 방언)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



지역 방언의 예



## 유의어

 近义词 (jìn yì cí)

[類義語] 서로 뜻이 비슷한 말.

- **유의어**는 서로 소리가 다르고 단어의 성격도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단어이다.
- 유의어는 ‘아름답다-예쁘다-어여쁘다-곱다...’처럼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의 무리인 경우가 많다.

유의어의 예: 여자-여성-여인, 아이-어린이, 낮-얼굴

① 너를 볼 **낮**이 없어.

② 너를 볼 **얼굴**이 없어.

→ ①은 자연스럽지만 ②는 어색하다. 이처럼 유의어라 해도 문장의 흐름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사용해야만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

## 반의어

 반대말

 反义词 (fǎn yì cí)


[反義語/反意語]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

- **반의어**는 두 단어 사이에 공통점이 반드시 있으면서, 동시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단어이다.
- 예를 들어 ‘위-아래’는 둘 다 위치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의어이다. ‘크다-작다’는 크기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는 반의어이다. 그러나 ‘위’와 ‘작다’는 서로 공통점이 없으므로 반의어가 될 수 없다.
- ‘아이’에 대한 반의어로 ‘어른, 성인, 윗사람, 어르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반의어가 있을 수도 있다.

반의어의 예: 위-아래, 크다-작다, 가다-오다,  
동-서, 남-북...

## 동의어

 동의어

 同义异音词  
(tóng yì yì yīn cí)

[同義語/同意語] 뜻이 같지만 소리는 다른 말.  
이음동의어라고도 함.

- **동의어**란 소리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 동의어는 중심적인 의미가 같을 뿐 문장에서 서로 마음껏 바꾸어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① 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② 어제 할아버지가 **죽으셨어**.

‘돌아가다’와 ‘죽다’는 동의어이지만 바꾸어 쓰면 어색해진다.



### Tip

보통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동의어가 많다.

예) 차다-냉(冷), 따뜻하다-온(溫)...

이러한 동의어 중에 한쪽이 더 많이 쓰이면 다른 쪽이 사라지기도 한다.

예) 가람-강(江) → ‘가람’이 사라짐.  
즈문-천(千) → ‘즈문’이 사라짐.



## 동음이의어 [중]

- 북 동음어
- 중 同音异义词 (tóng yīn yì yǐ cí)

[同音異義語]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

- 동음이의어란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과 얼굴에 있는 ‘눈(目)’은 동음이의어이다.

동음이의어

머리01 전제 보기

「명사」

1.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을 포함하며 머리털이 있는 부분을 이른다. 뇌와 중추 신경 따위가 들어 있다.
2.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3. 머리털.
4. 한자에서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부수. ‘家’, ‘花’에서 ‘宀’, ‘艹’ 따위이다.
5. 단체의 우두머리.
6. 사물의 앞이나 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일의 시작이나 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어떤 때가 시작될 무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
10. 일의 한 차례나 한 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음악』 = 음표 머리.

머리02 전제 보기

「명사」

1. 덩어리를 이룬 수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
2. 돈머리.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머리’ 검색 결과



Tip

### 동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분

동의어는 소리가 다르나 같은 뜻을 가진다. 반면 동음이의어는 소리가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진다.

## 다의어 [중]

- 북 다의어
- 중 多义词 (duō yì cí)

[多義語] 하나의 단어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말.

- ①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
- ② 동생은 **머리**가 좋다.
- ③ **머리**를 짧게 잘랐다.

위의 세 문장에서 ‘머리’는 각각 ‘목 위에 있는 부분’, ‘생각하는 능력’, ‘머리카락’이라는 관련된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질 때 **다의어**라고 한다.



Tip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

- 동음이의어는 의미상 관련이 없지만, 다의어는 의미상 관련이 있다.
- 사전을 살펴봤을 때 서로 다른 표제어인 것은 동음이의어, 같은 표제어에 1, 2, 3...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은 다의어이다.





1. ㉠ 은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분류로, 한국어에는 총 아홉 가지가 있다.
2. 용언에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 ㉡ 와 사물의 모양과 성질을 설명하는 말인 ㉢ 가 있다.
3. ㉣ 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쪼개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라진다.
4. 하나의 어미 ‘-먹-’에 ‘먹어, 먹어서, 먹는, 먹은, 먹고’ 등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 이라고 한다.
5. 우리말에 원래부터 있던 말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말을 ㉥ 라고 한다. 어머니, 하늘, 바람 등이 있다.
6. ‘위-아래’, ‘크다-작다’처럼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을 ㉦ 라고 한다.
7.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과 얼굴에 있는 ‘눈(目)’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이런 말을 ㉧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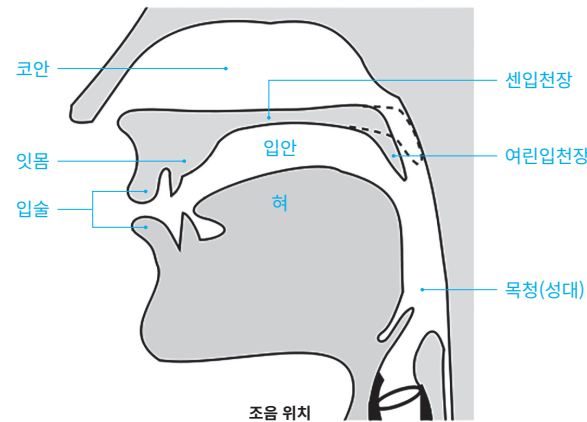
## 02 음운의 변동

조음 위치 중

[調音位置] 자음을 말할 때 공기가 입안의 방해를 받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 우리말에는 다섯 개의 **조음 위치**가 있다.

조음 위치	설명	해당 자음
입술소리(순음)	두 입술을 이용하여 내는 소리	ㅂ, ㅃ, ㅍ, ㅁ
잇몸소리(치조음)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내는 소리	ㄷ, ㄸ, ㅌ, ㅊ, ㅅ, ㅆ, ㄴ, ㄹ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내는 소리	ㅈ, ㅉ, ㅊ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내는 소리	ㄱ, ㅋ, ㆁ, ㅇ
목청소리(후음)	성대를 막거나 성대끼리 부딪혀서 내는 소리	ㅎ





조음방법 \ 조음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자음체계표

## 안울림소리

- 북 무음소리
- 중 清音 (qīng yīn)

### 파열음

- 북 터침소리
- 중 破裂音 (pò liè yīn)

### 마찰음

- 북 스침소리
- 중 摩擦音 (mó cā yīn)

### 파찰음

- 북 터스침소리
- 중 塞擦音 (sāi cā yīn)

소리를 낼 때, 목청이 떨리지 않고 나는 소리.  
무성음이라고도 함.

- 안울림소리에는 ‘ㄴ, ㄹ, ㅁ, ㅇ’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해당된다.
- 안울림소리에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다.
- 파열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로,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이 있다.
- 마찰음은 입안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여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로, ‘ㅅ, ㅆ, ㅎ’이 있다.
- 파찰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천천히 터트려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로, ‘ㅈ, ㅉ, ㅊ’이 있다.

## 울림소리

- 북 울림소리
- 중 浊音 (zhuó yīn)

### 비음

- 북 코소리
- 중 鼻音 (bí yīn)

### 유음

- 중 流音 (liú yīn)

소리를 낼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  
유성음이라고도 함.

- 울림소리에는 모든 모음과 자음 ‘ㄴ, ㄹ, ㅁ, ㅇ’이 해당된다.
- 울림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ㅁ, ㄴ, ㅇ’이 있다.
-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댄 채 공기를 혀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소리로, ‘ㄹ’이 있다.



#### Tip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을 외우는 방법  
‘노란 양말’(ㄴ, ㄹ, ㅇ, ㅁ)이라고 외우면 쉽다.

## 예사소리

- 북 순한소리
- 중 平音 (píng yīn)

입안에서 약하게 발음되는 소리. 평음이라고도 함.

- 예사소리에는 ‘ㅂ, ㄷ, ㄱ, ㅈ, ㅅ’이 있다.

## 된소리

- 북 된소리
- 중 硬音 (yìng yīn)

예사소리에 비해 목청을 힘주어 좁히고 입안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경음이라고도 함.

- 된소리에는 ‘ㅃ, ㄸ, ㄲ, ㅉ, ㅊ’이 있다.

## 거센소리

- 북 거센소리
- 중 激音 (jī yīn)

목청 사이를 넓게 열고 공기를 많이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격음이라고도 함.

- 거센소리에는 ‘ㅍ, ㅌ, ㅋ, ㅊ’이 있다.



## 맞춤법

- 북 맞춤법
- 중 拼写法 (pīn xiě fǎ)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도록 하는 법.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음과 모음의 소리, 형태, 띄어쓰기 규칙 등을 포함한다.

###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꽃이 핀다 [꼬치 핀다]

꽃이[꼬치]: 어법에 맞게 적기

→ ‘꽃’이라는 단어는 뒤에 붙는 말에 따라서 꽃이[꼬치], 꽃놀이[꼰노리], 꽃과[꼰파]와 같이 다양하게 소리가 난다. 소리대로만 적으면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예) 나물좀다오 → 나 V 물 V 좀 V 다오  
나물 V 좀 V 다오

-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띄어 쓰되,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인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 쓴다.

+

맞춤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

## 음운

- 북 음운
- 중 音韵 (yīn yùn)

[音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갑’과 ‘밤’은 ‘ㄱ’과 ‘ㅂ’의 자음 하나 차이로 뜻이 바뀐다. 또, 같은 ‘밤’이라도 길게 발음할 때는 먹는 ‘밤’, 짧게 발음할 때는 어두운 ‘밤’을 뜻한다.
- 이처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 음운에는 자음, 모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분절 음운과 소리의 길이, 억양과 같이 나누어질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이 있다.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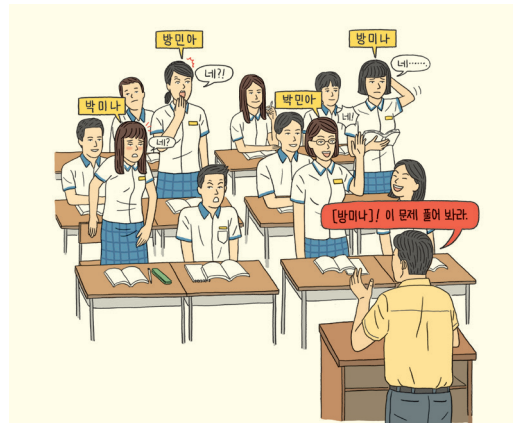
ㅂ/ㅌ/ㄹ

팔

ㅍ/ㅊ/ㅋ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발’과 ‘팔’의 ‘ㅂ’과 ‘ㅍ’은 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이다.

음운의 개념



위의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 학생이 대답한 이유는 음운이 모두 [방미나]로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듣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이름을 구별하지 못했다.



## 두음 법칙 ㉠

- 북 두음법칙  
중 头音规则 (tóu yīn guī zé)

[頭音法則] ‘ㄴ’, ‘ㄹ’ 등의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그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발음하는 법칙.

- **두음 법칙**은 첫소리에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 ‘ㄴ’이나 ‘ㄹ’이 **탈락하여 ‘ㅇ’**이 오거나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남녀(男女) : 여자(女子)    쾌락(快樂) : 낙원(樂園)  
만년(晩年) : 연세(年歲)    왕래(往來) : 내일(來日)  
급류(急流) : 유행(流行)    원로(元老) : 노인(老人)

+

- ‘두음’은 단어의 첫소리이다. 예를 들어, ‘구름’에서는 ‘ㄱ’이 두음이다.
-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연음 법칙 ㉠

- 북 연음법칙  
중 连音规则 (lián yīn guī zé)

[連音法則]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앞의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법칙.

- **연음 법칙**에 따라 ‘하늘이 예쁘다’는 [하느리 예쁘다]로 발음된다.

## 음절 ㉠

- 북 소리마디  
중 音节 (yīn jié)

[音節] 발음할 때 함께 묶여서 나는 소리의 단위.

-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로 적는 표기가 아닌 입으로 소리 낸 발음이 기준이 된다.
- ‘색연필[생년필]’은 ‘생’, ‘년’, ‘필’의 3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 음운 교체 ㉠

- 북 소리교체  
중 音韵交替 (yīn yùn jiāo tì)

[音韻交替]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음운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모음 동화가 있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 북 음절의 끝소리규칙  
중 音节尾音规则 (yīn jié wěi yīn guī zé)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고, 나머지 자음은 7개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라고도 함.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발음할 수 없는 받침을 발음할 수 있는 발음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대표음으로 발음

- [ㄱ] - ㄱ, ㄲ, ㅋ    예) 석, 쉬 → [석], 부엌[부억]
- [ㄴ] - ㄴ    안[안]
- [ㄷ] - ㄷ, ㅌ, ㅆ, ㅈ, ㅊ, ㅌ    남, 날, 낫, 낮, 낯, 낡 → [남]
- [ㄹ] - ㄹ    달[달]
- [ㅁ] - ㅁ    밤[밤]
- [ㅂ] - ㅂ, ㅍ    압, 앞 → [압]
- [ㅇ] - ㅇ    성[성]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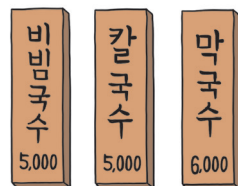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자음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  
‘가느다란 물방울(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라고 외우면 쉽다.



## 된소리되기 ㄱ

- ㄱ 된소리되기
- 硬音化 (yǐng yīn huà)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만났을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경음화라고도 함.



여기, 비빔국수 하나요!

국수[국쑤]

-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드물지만 어간 받침, 한자어, 관형사의 된소리되기 현상도 있다.

- 저쪽 **앞길**에 있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자.
- 앞길[압길], 국밥[국뽵]

## 자음 동화 ㄱ

- 辅音同化 (fǔ yīn tóng huà)

### 비음화 ㄱ

- ㄱ 코소리되기
- 鼻音化 (bí yīn huà)

### 유음화 ㄱ

- ㄱ 울림소리되기
- 流音化 (liú yīn huà)

[子音同化]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다음에 오는 자음과 만나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변하는 일.

- **자음 동화**는 앞뒤 자음의 조음 방법을 같게 하여 편하게 발음하려고 일어나는 일이다.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 **비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일이다.
- 이 밖에도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 오는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거나, 비음 ‘ㄹ, ㅇ’ 뒤에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도 비음화다.
- **유음화**는 비음인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소리 나는 일이다.



- 비음화의 예: 먹는다[멍는다], 달는[단는], 섭리[섬니]  
백로 → [백노] → [뱅노]...
- 유음화의 예: 물난리[물랄리], 난로[날로]...

+

-화[化]는 원래와 다르게 변했다는 뜻이다. 즉,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 구개음화 ㉠

- 북 입천장소리되기
- 중 口盖音化 (kǒu gài yīn huà)

[口盖音化] 구개음이 아닌 ‘ㄷ, ㅌ’이 ‘ㄴ’ 모음이나 반모음을 만나 구개음인 ‘ㄷ, ㅌ’으로 바뀌는 일.

- 구개음화는 ‘ㄷ,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다.



해돋이[해돋지]

-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구개음화의 예: 굳이[구지] (굳- + -이),  
해돋이[해돋지] (해 + 돋- + -이),  
같이[가치] (같- + -이), 붙여[부처] (붙- + -여)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예:

- ① 발이랑[반니랑]  
→ 발이랑(발+이랑)은 실질 형태소끼리의 결합이다.
- ② 견디다[견디다], 느티나무[느티나무]  
→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반모음이란?** 모음처럼 발음하지만 음절이 되지 못하는 짧은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등에서 나는 소리이다. ‘ㅏ’에 반모음이 더해져서 ‘ㅑ’ 소리가 나게 된다.

## 모음 동화 ㉠

- 중 元音同化 (yuán yīn tóng huà)

[母音同化] 모음이 다른 모음의 영향을 받아 같은 성질의 것으로 바뀌는 일. 전설 모음화라고도 함.

- 혀가 입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후설 모음인 ‘ㅗ, ㅛ, ㅜ, ㅠ’가 모음 ‘ㅣ’와 만나면 혀가 입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전설 모음인 ‘ㅏ, ㅑ, ㅓ, ㅕ’로 바뀌어 소리 난다.
- 혹은 전설모음 ‘ㅣ’가 후설모음 ‘ㅗ, ㅛ’를 만나 ‘ㅑ, ㅕ’로 바뀌어 소리 난다.
- **모음 동화**는 표준어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많이 쓰여 굳어진 단어들은 표준어로 인정하기도 한다.

- 모음 동화의 예: 아기[애기], 어미[애미], 고기[괴기]
- 모음 동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 냄비, 멧쟁이, 담쟁이
- 모음 동화가 발음으로 인정된 예: 되어[되여], 아니오[아니요], 학생이오[학생이요]

## 음운 축약 ㉠

- 중 音韵缩略 (yīn yùn suō lüè)

[音韻縮約]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일.

- **음운 축약**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있다.



## 거센소리되기 ㄱ

- 거센소리되기  
● 送气音化 (sòng qì yīn huà)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났을 때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되는 일.

- 거센소리되기는 자음 2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줄었다는 뜻에서 ‘자음 축약’이라고도 한다.



- 축하[추카] ㄱ + ㅎ → ㅋ
- 좋다[조타] ㅎ + ㄷ → ㅌ
- 밥하다[바파다] ㅂ + ㅎ → ㅍ

+

‘축하’의 음운 개수는 ‘ㅈ/ㅌ/ㄱ/ㅎ/ㅏ’로 5개인데, 자음 축약이 일어나 [추카]로 발음하면 음운 개수는 ‘ㅈ/ㅌ/ㅋ/ㅏ’로 4개가 되어 줄어든다.

## 음운 탈락 ㄱ

- 말소리빠지기  
● 音韵省略 (yīn yùn shěng lüè)

[音韻脫落] 두 음운이 만날 때 한 음운이 없어지는 일. 음운 생략이라고도 함.

- 음운 탈락에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다.

## 자음 탈락 ㄱ

- 자음빠지기  
● 辅音省略 (fǔ yīn shěng lüè)

[子音脫落] 두 음운이 만날 때 자음이 탈락하는 일.

- 자음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이 있다.
-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오면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ㄹ, ㅍ, ㅂ’만 뒤 자음(ㄱ, ㄴ, ㅍ)으로 발음되고 나머지는 전부 앞 자음으로 발음된다.
- ‘ㄹ’ 탈락은 용언이 활용될 때나,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표기에 반영된다.
- ‘ㅎ’ 탈락은 용언이 활용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 자음군 단순화의 예: 흙[흑], 뭇[목], 앓고[안꼬]
- ‘ㄹ’ 탈락의 예: 날 + -니 → 나니, 바늘 + -질 → 바느질
- ‘ㅎ’ 탈락의 예: 좋아[조아], 넣어[너어], 쌓이다[싸이다]



Tip

자음군 단순화를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  
겹받침은 ‘ㄷ[닥], ㅅ[삼], ㄴ[음따]’만 뒤의 자음으로 발음된다고 외우면 쉽다.



## 모음 탈락 ㉠

- 북 모음빠지기
- 중 元音省略 (yuán yīn shěng lüè)

[母音脫落] 두 음운이 만날 때 모음이 탈락하는 일.

· 우리말에서는 모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 발음이 힘들어서 모음을 축약하거나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 **모음 탈락**에는 ‘ㅡ’ 탈락과 동음 탈락 등이 있으며, 표기에 반영된다.

· ‘ㅡ’ 탈락은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되는 일이다.

· 동음 탈락은 동일한 모음 ‘ㅏ, ㅑ’가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되는 일이다.



고프-+ -아서 → 고파서

· ‘ㅡ’ 탈락의 예: 쓰- + -어 → 써, 담그- + -아 → 담가

· 동음 탈락의 예: 가- + -아서 → 가서,  
건너- + -어서 → 건너서

## 음운 첨가 ㉠

- 중 音韵添加 (yīn yùn tiān jiā)

[音韻添加] 원래 없던 음운이 덧붙여지는 일.

· **음운 첨가**에는 대표적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있으며 그 외에 반모음 첨가 등이 있다.

·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 ‘ㅣ’가 더해지는 현상이다.

반모음 첨가의 예: 피어 → [피여]

반모음 ‘ㅣ’ + ㅣ → ㅚ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중 모음이 됨.)

## 사잇소리 현상 ㉠

- 북 사이소리 현상
- 중 中间音现象 (zhōng jiān yīn xiàn xiàng)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 그 사이에서 소리가 더해지는 일.

· **사잇소리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ㅅ’을 표기한다.

1.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울림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일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

고기 + 국 → 고깃국[고기꺽/고깃국],  
몸 + 짓 → 몸짓[몸짚]

2.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로 시작하면 ‘ㄴ’ 소리가 더해진다.

이 + 몸 → 잇몸[인몸], 초 + 농 → 촛농[촌농]

3.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면 ‘ㄴ, ㄴㅣ’이 더해진다.

숨 + 이불 → 숨이불[숨니불], 깨 + 잎 → 깻잎[깻닙]

+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 사이에서만 일어나며, ‘한자어+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예) 초점(焦點)[초점]  
그러나 한자어 중 ‘곳간, 찻간, 틈간, 횃수, 숫자, 셋방’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해님(○) 햇님(×)

해님(해 + -님)은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다가(×) 바닷가(○)

바닷가(바다 + 가)는 합성어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초점(○) 촛점(×)

초점(焦點)은 ‘한자어+한자어’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 자음을 말할 때 공기가 입안의 방해를 받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① 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다섯 개가 있다.
-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도록 하는 법을 ② 이라고 하며, 자음과 모음, 소리, 형태, 띄어쓰기 규칙을 포함한다.
- ‘감’과 ‘밤’은 ‘ㄱ’과 ‘ㅂ’의 자음 하나 차이로 뜻이 바뀐다. 이처럼 ③ 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ㄴ’, ‘ㄹ’ 등의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ㅇ’이나 ‘ㄴ’으로 바꾸어 발음하고 쓰는 것을 ④ 이라고 한다.
-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다음에 오는 자음과 만나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변하는 일을 ⑤ 라고 한다. 그 종류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났을 때 거센소리 ‘ㅋ, ㅌ, ㅊ, ㅌ’이 되는 일을 ⑥ 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라 ‘축하’는 [추카], ‘좋다’는 [조타]라고 읽는다.
- ‘고기+국’은 ‘고깃국’, ‘깨+잎’은 ‘깻잎’이라고 쓴다.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 그 사이에서 소리가 더해지는 현상을 ⑦ 이라고 한다.

음절 ㄴㅊㅈㅌㅊㅌㅌ ㄴ ㄴㅊㅈㅌㅌㅌㅌ ㄴ

회음 ㅊㅌㅌ ㄴㅊㅌㅌㅌㅌ ㅊㅌㅌ ㅊㅌㅌㅌㅌ ㄴㅌㅌㅌㅌㅌ ㅌㅌㅌㅌㅌㅌㅌ

## 03 문장과 표현

3

단문

03 문장과 표현

### 주성분

북 주성분  
중 必要成分  
(bì yào chéng fèn)

[主成分]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

-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며, 목적어와 보어는 서술어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되다’라는 서술어는 보어가 필요하다.

### 주어

북 주어  
중 主语 (zhǔ yǔ)

[主語] 서술어가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먹는다’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을 하고 있는 주체는 ‘철수’다. 따라서 ‘철수’가 **주어**가 된다.
- 주어는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오지만, 우리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주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예) 철수가 영화를 만났다(○), 영화를 철수가 만났다(○)

- 조사 중에서 ‘-이/-가, -께서, -에서’는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

우리말에는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도 있다.  
이를 ‘이중주어문’이라고 한다.  
예) 영화가 얼굴이 예쁘다. / 영화가 키가 크다.

### 서술어

북 서술어  
중 谓语 (wèi yǔ)

[敘述語]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철수가 밥을 먹는다.’에서 철수의 행위를 나타내는 ‘먹는다’가 **서술어**에 해당한다.
- ‘먹다, 예쁘다, 조용하다’ 등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한 서술어와 ‘-이다’를 사용한 서술어가 있다.
- 목적어나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술어도 있다. 예를 들어 ‘사다’는 ‘-을’이라는 목적어가, ‘되다’는 ‘-이/-가’라는 보어가 필요하다.



## 목적어 [중]

- 복 직접보어
- 중 宾语 (bīn yǔ)

[目的語]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철수가 밥을 먹는다.’에서 철수가 먹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분인 ‘밥을’이 **목적어**에 해당한다.
- 목적어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앞에 쓴다.
- 조사 ‘-을/-를’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이다.

## 보어 [중]

- 복 보어
- 중 补语 (bǔ yǔ)

[補語]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부족한 문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

- **보어**는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 앞에 ‘-이/-가’와 함께 온다.
- ‘철수가 선생님이 되다’라는 문장은 ‘철수가’라는 주어와 ‘되다’라는 서술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보어가 필요하다.

## 부속 성분 [중]

- 복 부성분
- 중 附加成分 (fù jiā chéng fèn)

[附屬成分]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

-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에서 빼더라도 어색하지 않다.

## 관형어 [중]

- 복 관형어
- 중 定语 (dìng yǔ)

[冠形語]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 **관형어**는 혼자 쓰이지 못하고, 꾸며 주는 말 앞에 놓인다.
- 관형어에는 관형사나 체언 뒤에 오는 관형격 조사 ‘-의’, 용언 어간 뒤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ㄴ, -는, -던, -ㄹ)가 있다.

철수의 **새** 일기장.  
어제 **말한** 가게.  
오늘 **갔던** 곳.

- 체언 뒤에 붙는 관형격 조사 ‘의’: **철수+의**
- 관형사: **새**
- 용언 어간 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말하+ㄴ**, **갔+ㄴ**

## 부사어 [중]

- 복 부사어
- 중 状语 (zhuàng yǔ)

[副詞語]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 **부사어**에는 부사나 용언의 어간과 함께 쓰이는 부사형 어미(-이, -게, -도록, -듯이), 체언과 함께 쓰이는 부사격 조사(-에, -에게, -로...)가 있다.
- 부사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의 의미를 더해준다.

철수는 밥을 **아주 느리게** 먹는다.  
영희가 **학교에** 간다.

- 부사: **아주**, 많이, 너무, 다시...
- 어간과 함께 쓰이는 부사형 어미: **느리+ㄴ**-게
- 체언과 함께 쓰이는 부사격 조사: **학교+**-에

## 독립 성분 [중]

- 복 외판성분
- 중 独立成分 (dú lì chéng fèn)

[獨立成分]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성분.

-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 독립 성분은 뒤에 오는 성분들과 함께 문장을 만들고 꾸미는 일을 한다.

## 독립어 [중]

- 복 독립어
- 중 独立句 (dú lì jù)

[獨立語]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쓰이는 문장 성분.

- **독립어**에는 감탄사나 체언과 함께 쓰이는 호격 조사(-아, -야), 그리고 접속 부사가 있다.

**아!** 학교에 늦었어.  
**철수야**, 밥 먹었니?  
나는 아까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  
· 감탄사의 예: **아**, 아차, 어머니...  
· 호격 조사의 예: (**누구누구**)-**야**, 신이시여!...  
· 접속 부사의 예: **그런데**, 또, 즉, 그리고...



## 홀문장 ㉠

- 단일문
- 单句 (dān jù)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 홀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밖에 없는 문장이다.

- 봄이 온다. → 주어 ‘봄이’와 서술어 ‘온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철수는 새 신발을 어제 샀다. → 주어 ‘철수는’과 서술어 ‘샀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겹문장 ㉠

- 복합문
- 复句 (fù jù)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 ‘겨울이’ (주어) + ‘가고’ (서술어) / ‘봄이’ (주어) + ‘온다’ (서술어)
-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등장하는 겹문장이다.

## 안은문장 ㉠

- 包孕句 (bāo yùn jù)

겹문장 중에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 것.

- 안은문장은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으로 나뉜다. ‘안는다’는 것은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안은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등을 안을 수 있다.

- 나는 그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다.
- (나는 알고 있다. + 그가 똑똑하다.)
- ‘나는 알고 있다’는 안은문장이며 ‘그가 똑똑하다’는 안긴문장이다.

## 이어진문장 ㉠

- 复句 (fù jù)

두 개의 홀문장이 연결해주는 어미를 통해 이어진 문장.

- 이어진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문장의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뜻이 변하지 않는다.

- 꽃이 피고 새가 온다.
- 새가 울고 꽃이 핀다.(○)

- 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순서를 바꾸면 뜻이 변하거나 이상해진다.

- 노트북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
- 돈을 모으려고 노트북을 사고 있다.(×)

+

종속이란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 주어와 술어 관계, 수식 관계 등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疑問文] 말하는 이가 무엇인가를 묻고 답을 요구하는 문장.

- **의문문**을 끝맺을 때는 ‘-니, -는가, -니까...’ 등의 어미를 사용한다. 문장부호로 물음표 ‘?’ 를 쓴다.
- ‘누구, 무엇, 왜, 언제, 어디, 얼마나...’ 등의 의문사를 사용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이 있다.
- 의문문은 명령문과 청유문과는 다르게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 설명 의문문의 예: 이번 주말에 **어디서** 놀까?
- 판정 의문문의 예: 이 책 주인은 너지?

- 의문문은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 정말로 시간이 궁금할 때: 지금 몇 시니?
- 수업에 지각한 학생을 보고 추궁할 때: 지금 몇 시니?

## 의문문 [중]

북 의문문

중 疑問句 (yí wèn jù)

[命令文]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 **명령문**을 끝맺을 때는 ‘-어라, -(으)라’ 등의 어미를 사용하며, 주어는 반드시 듣는 이가 된다. 서술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만 쓴다.
- 직접 듣는 이를 보고 명령하는 직접 명령문과 현장에 없는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간접 명령문이 있다.

- 직접 명령문의 예: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 간접 명령문의 예: 문제에서 맞는 답을 고르라.



Tip

명령문의 서술어는 동사만 쓰기 때문에 “건강하세요!”나 “행복하세요!”는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건강하다’와 ‘행복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너 오늘부터 예뻐라.’ ‘내일부터 아파라.’라는 문장이 어색한 이유와 같다. 이제부터 ‘바라다’라는 동사를 써서 “건강하시길 바라요!” 혹은 “행복하시길 바라요!”라는 표현을 써보자.

## 명령문 [중]

북 명령문, 시킴문

중 祈使句 (qí shǐ jù)

평서문

-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하는 것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하는 문장.
- 종결 어미 ‘-다’, ‘-습니다’ 등을 사용함.

의문문

-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종결 어미 ‘-냐’, ‘-느냐’, ‘-(으)니까’ 등을 사용함.

명령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 종결 어미 ‘-아라/-어라’, ‘-(으)십시오’ 등을 사용함.

청유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
- 종결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을 사용함.

감탄문

- 화자가 청자를 신경쓰지 않고 거의 혼자말을 하는 것처럼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 종결 어미 ‘-구나’, ‘-군’ 등을 사용함.

문장의 종류

## 평서문 [중]

북 서술문

중 陈述句 (chén shù jù)

[平敘文]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평범하게 말하는 문장.

- **평서문**은 평범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건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요구나 지시, 물음의 의도가 없다.
- 평서문을 끝맺는 대표적인 어미로는 ‘-다’가 있다.

저녁 하늘이 참 아름답다.



## 청유문 [중]

- 북 추김문  
중 请求句 (qǐng qiú jù)

[請誘文]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같이 행동하자고 하는 문장.

- 청유문을 끝맺을 때는 주로 ‘-자, -세, -ㅂ시다’ 등의 어미를 사용한다.
- 청유문의 주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의미하고, 서술어는 동사만 쓴다.

내일이 시험이니까 같이 공부하자. (○)

우리 오늘부터 귀엽자. (×) → ‘귀엽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청유문으로 쓸 수 없다.

## 감탄문 [중]

- 북 감탄문  
중 感叹句 (gǎn tàn jù)

[感歎文]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기쁨, 슬픔, 놀람 등을 표현하는 문장.

- 감탄문을 맺을 때는 주로 ‘-군요, -구나, -군, -아라/어라’ 등의 어미를 사용한다.
- 감탄문의 마지막에는 문장부호 느낌표 ‘!’를 붙인다.

저녁 하늘이 참 아름답구나!

## 주체 높임법 [고]

- 중 主体敬语 (zhǔ tǐ jìng y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

- 주체 높임법은 서술하는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 조사 ‘께서’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높임을 나타낸다.
-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주어의 소유물, 신체 일부분, 관련 있는 사람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 직접 높임의 예: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셨다.  
(가- + -시- + -았- + -다)  
→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어머니’를 높인다.
- 간접 높임의 예: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키’를 높인다.



## 객체 높임법 ㄱ

중 客体敬语 (kè tǐ jìng yǔ)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방법.

- 객체란 문장에서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를 말한다.
- **객체 높임법**은 ‘뵈다, 드리다, 여쭙다’ 등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를 높인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신다. → ‘모시고’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어머니’를 높인다.

※ ‘오라-시-ㄴ-다’의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선생님)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다.

## 상대 높임법 ㄱ

중 相对敬语 (xiàng duì jìng yǔ)

### 격식체 ㄱ

중 格式体 (gé shì tǐ)

### 비격식체 ㄱ

중 非格式体 (fēi gé shì tǐ)

문장의 마지막에 일정한 어미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 **격식체**는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인 어조이며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가 있다.
-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주관적인 어조이며 ‘해요체’, ‘해체’가 있다.

상대 높임 표현의 체계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해요체(두루 높임)
하오체(예사 높임)	해체(두루 낮춤)
하게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 낮춤)	



하십시오체 : 이 떡을 먹으십시오.  
 하오체 : 이 떡을 먹으시오.  
 하게체 : 이 떡을 먹게.  
 해라체 : 이 떡을 먹어라.  
 해요체 : 이 떡을 먹어요.  
 해체 : 이 떡을 먹어.



## 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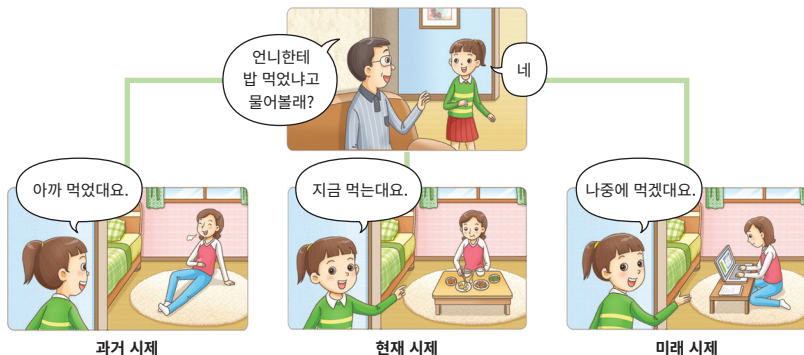
- 북 시간범주
- 중 时态 (shí tài)

[時制]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 **시제**는 말을 하는 시점(시간)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것이 과거 시제, 일치하는 것이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미래 시제이다.
- 국어의 시제는 선어말 어미 ‘-았/었-’(과거), ‘-겠-’(미래) 등에 의해 표현되거나, 용언의 어미 ‘-(으)ㄴ, -는-’(현재), ‘-던-’(과거)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어제, 옛날에, 지금, 다음 주에’ 등을 사용하여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아까 먹었대요.** (과거)  
→ 용언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을 사용한다.
- **지금 먹는대요.** (현재)  
→ 용언에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을 사용한다.
- **나중에 먹겠대요.** (미래)  
→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나중’과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한다.

## 주동

- 북 주동
- 중 主动 (zhǔ dòng)

[主動] 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주동**은 사동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주동은 문장의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다.

- 영화가 사과를 먹는다.
-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 사동

- 북 시김상
- 중 使动 (shǐ dòng)

[使動]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

- **사동**은 주동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용언에 사동 접사 ‘-이-, -하-, -리-, -기-, -우-, -구-, -추-’를 붙이거나, ‘-시키다’, ‘-게 하다’를 붙여 사동을 나타낸다.
- 사동 표현에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있다. ‘-게 하다’를 사용한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뜻만 나타낼 수 있다.

- 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먹-이-었-다**’)  
→ 동생에게 직접 밥을 먹여주었다. (직접 사동)  
→ 밥을 먹으라고 말해서 동생이 스스로 밥을 먹었다. (간접 사동)
- 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먹-게 했다**’)  
→ 밥을 먹으라고 말해서 동생이 스스로 밥을 먹었다. (간접 사동)

- **+** 직접 사동은 주어가 직접 대상에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반면 간접 사동은 대상에게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 능동 ㄱ

- 북 능동
- 중 主动 (zhǔ dòng)

[能動] 주체가 제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

- 능동은 피동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능동 표현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인물이 주어가 된다.



내가 오늘 봉어빵을 백 개나 팔았어.  
→ 주어 '내'가 제힘으로 '팔았다'는 능동 표현이다.

## 피동 ㄱ

- 북 피동
- 중 被动 (bèi dòng)

[被動]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 피동 표현에서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대상이 주어가 된다.
- 용언에 피동 접사 '-이-', '-하-', '-리-', '-기-'를 붙이거나, '-어지다'를 붙여 피동을 나타낸다. 또는 일부 단어 뒤에 '되다'를 붙인다.
- 능동 표현은 행동을 하는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서 주어의 행동이 강조된다. 반면, 피동 표현은 행동을 일으킨 주체가 덜 강조된다.

오늘 봉어빵이 백 개나 팔렸어.  
→ 주어 '봉어빵'이 나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다는 피동 표현이다.

+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조심스럽고 겸손해보이지만, 소극적이거나 책임을 피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 부정 표현 ㄱ

- 북 부정 표현
- 중 否定 (fǒu dìng)

[否定表現] '안'이나 '못'을 붙여 문장의 내용을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나타내는 표현.

- 부정 표현 중 '안' 부정문은 능력은 되지만 주체가 일부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정문이다. '의지 부정문'이라 하기도 한다.
- 부사 '안'을 써서 짧은 부정문으로, 서술어 '-지 않다', '-지 아니하다'를 써서 긴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못' 부정문은 하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부정문이다. '능력 부정문'이라 하기도 한다.
- 부사 '못'을 써서 짧은 부정문으로, 서술어 '-지 못하다'를 써서 긴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명령문과 청유문을 부정할 때는 '-지 마라', '-지 말자'를 사용하는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학교에 갔다.

- 안 부정문: 학교에 안 갔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 못 부정문: 학교에 못 갔다. 학교에 가지 못했다.
- 명령문의 부정: 학교에 가지 마. 학교에 가지 마라.
- 청유문의 부정: 학교에 가지 말자.



## 외래어 표기법

- 북 들어온 말 표기법
- 중 外来语标记法  
(wài lái yǔ biāo jì fǎ)

[外來語表記法]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

·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래 언어의 발음은 존중하되, 국어에서 사용하는 24개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하여 적어야 한다.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사용한다.

robot 로봇(○), 로볼(×)

· 외래어 음운 하나당 한 개의 기호만 사용하여 적는다.

파이팅(○), 화이팅(×)  
‘f’는 ‘ㅍ’과 ‘ㅎ’ 중에서 ‘ㅍ’으로만 표기한다.

· 파열음을 표기할 때는 된소리로 쓰지 않는다.

bus 버스(○), 뽀쓰(×)

· 외래어 가운데 오래 써서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

radio 라디오(○), 레이디오(×)  
camera 카메라(○), 케머러(×)

## 로마자 표기법

- 북 로마글자 표기법
- 중 罗马数字标记法  
(luó mǎ shù zì biāo jì fǎ)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

·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로마자(라틴 문자)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적는 방법이다.

·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으며 로마자 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과 같이 1음운 1기호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 발음에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한 결과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을 쓴다.

낙동강(Nakdonggang), 금강(Geumgang),  
독립[동닙](Dongnip)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 ① 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 ② 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철수가’가 이에 해당한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③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④ 이라고 한다.
- ‘저녁 하늘이 참 아름답다.’와 같이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평범하게 말하는 문장을 ⑤ 이라고 한다.
- ⑥ 은 조사 ‘께서’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이다.
- 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주동,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⑦ 이라고 한다.

목적어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 品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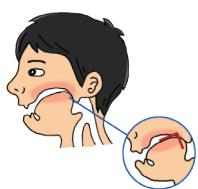
# 04 한글의 역사

## 상형

- 상형
- 象形字 (xiàng xíng zì)

[象形] 대상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방법,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 상형 문자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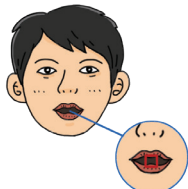
- 상형 문자에는 대표적으로 이집트 문자, 한자 등이 있다. 산을 본뜬 ‘山’, 강을 본뜬 ‘川’ 등이 상형 문자에 해당한다.
- 훈민정음 역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자음의 기본자 ‘ㄱ, ㄴ, ㄷ, ㅅ, ㅇ’,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모음의 기본자 ‘ㅏ, ㅑ, ㅣ’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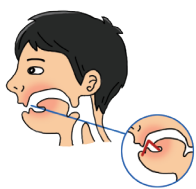
ㄱ 허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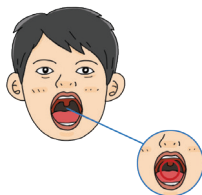
ㄴ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ㅁ 입의 모양



ㅇ 이의 모양



ㅏ 목구멍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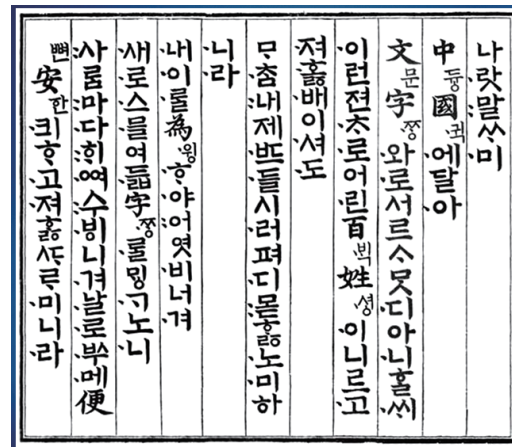
ㅑ 하늘의 둥근 모양



ㅓ 땅의 평평한 모양



ㅣ 사람이 서있는 모양



## 훈민정음

- 우리글
- 訓民正音 (xùn mín zhèng yīn)

### 창제

- 창제
- 創制 (chuàng zhì)

[訓民正音]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 조선 시대에 세종이 만든 우리나라의 글자, 또는 그것을 해설한 책.

- 훈민정음은 세종 대왕이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배우고 쓰기 쉬운 새로운 문자 28개를 만든 것이다.
-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으로 쓰인 대표적인 작품이다.
- 훈민정음은 한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한글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창제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에 의해 창제되었다.
-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 기본자를 만들었다. 거기에 획을 더한 가획자, 같은 글자를 겹친 병서자, 다른 모양을 지닌 이체자를 더해 17자가 만들어졌다.
-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따 기본자를 만들었다. 기본 모음들을 결합한 초출자, 다시 결합한 제출자까지 더해 11자가 만들어졌다.

+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글은 28자였으나, 자음 ‘ㅇ, ㅎ, ㅈ’와 모음 ‘ㅓ, ㅕ’가 없어지고 지금은 24글자만이 남아 있다.



## 가획

- 북 획덧붙이기
- 중 增加笔画 (zēng jiā bǐ huà)

[加劃] 원래 글자 위에 획을 더함.

- 훈민정음의 초성을 만들 때, 기본자보다 센 음을 나타내기 위해 **가획**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 가획자에는 ‘ㄱ, ㄴ, ㄹ, ㅅ, ㅇ’에 획을 더해 만든 ‘ㅋ, ㄷ, ㅌ, ㅍ, ㅈ, ㅊ, ㅎ’이 있다.

## 병서

- 북 병서
- 중 合写 (hé xiě)

[竝書] 훈민정음에서 초성자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것.

- 초성자란 단어 첫 소리에 오는 자음이나 모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병서**에는 ‘ㄱ, ㄷ, ㅌ’ 등과 같이 같은 글자를 붙여 쓰는 각자 병서와 ‘ㅅ, ㅈ, ㅊ’, ‘ㄴ, ㄹ, ㄷ, ㅈ, ㅊ’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문자를 붙여 쓰는 합용 병서가 있다.

## 이체자

- 중 异体字 (yì tǐ zì)

[異體字] 훈민정음에서 규칙이나 모양이 다른 글자.

- **이체자**는 훈민정음에서 ‘ㅇ, ㄹ, ㅏ’의 세 글자이다.
- 기본자에서 획을 더해 만들었으나, 기본자보다 음이 세다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 표음 문자

- 북 소리글자
- 중 表音文字 (biǎo yīn wén zì)

표의 문자

- 북 뜻글자
- 중 表意文字 (biǎo yì wén zì)

## 차자 표기법

- 북 차자 표기법
- 중 借字标记法 (jiè zì biāo jì fǎ)

[表音文字]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 **표음 문자**는 기호와 소리가 짝을 이루는 문자이다. 반면 **표의 문자**는 그림이나 형상을 따서 만든 것으로, 기호와 뜻이 짝을 이루는 문자이다.
- 대표적인 표음 문자에는 한글과 로마자가 있으며, 표의 문자에는 한자와 이집트 문자가 있다.

[借字表記法]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

- **차자 표기법**은 향찰, 이두, 구결 등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 향찰은 한자의 음을 빌려 문장을 적거나(음독)과 뜻을 빌려 문장을 적는 방법(훈독)으로 신라 시대에 향가를 적는 데 주로 쓰였다.

善	化	公	主	主	隱
착할 (선)	될 (화)	귀인 (공)	님 (주)	님 (주)	숨길 (은)
선	화	공	주	님	은
음독				훈독	음독
향찰(서동요 차자 표기법)					

- 이두는 한자의 순서를 국어의 순서에 맞게 고치고 조사를 붙인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향찰과 구결을 포함한다.
- 구결은 한문을 눈으로 읽고 소리 내서 말하기 위해서 각 구결 아래에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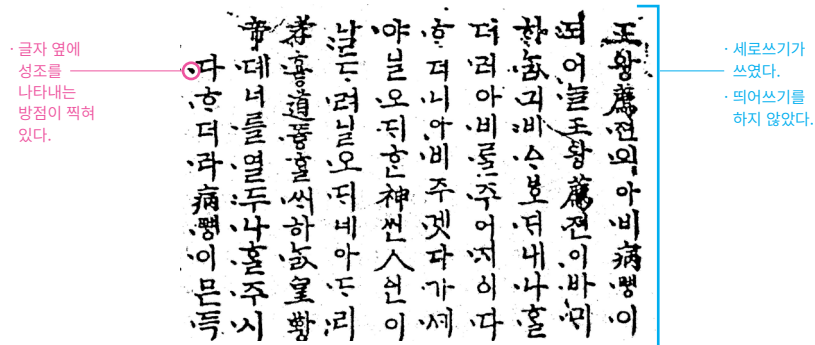


## 중세 국어

- 북 중세국어
- 중 中世紀韓語 (zhōng shì jì hán yǔ)

[中世國語] 고려가 세워진 10세기 초부터 임진왜란이 있던 16세기 말까지의 국어.

-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말의 높낮이, 즉 성조가 있었으며 이를 문자로 표기하였다.
- 또한 ‘ㅅ, ㅈ, ㅊ, ㅌ’ 등의 자음이 초성으로 쓰일 수 있었고, 동사 어간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진다.



## 성조

- 북 성조
- 중 声调 (shēng diào)

### 방점

- 북 방점
- 중 旁点 (páng diǎn)

[聲調]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 **성조**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어의 4성이 있다.
- 중세 국어 역시 성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표기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낮은 소리인 평성은 점이 없고, 높은 소리인 거성은 한 개의 점,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인 상성은 두 개의 점을 글자 왼쪽에 찍었다.
- 현대 국어에는 성조가 사라졌으나 경상도 방언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모음 조화

- 북 모음조화
- 중 元音調和 (yuán yīn diào hé)

[母音調和] 동일한 성질을 가진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 **모음 조화**는 ‘ㅏ, ㅑ’와 같이 가벼운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과 ‘ㅓ, ㅕ’와 같이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음성 모음이 같은 성질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다.
- 예를 들어, ‘강총깡총’은 양성 모음끼리 모인 한편, ‘깡총깡총’은 음성 모음끼리 모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 모음 조화는 중세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현대 국어에 와서는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모음 조화는 음성 상징어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 어제 밥을 **먹**었다.  
→ ‘먹(ㅍ)’에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다.
-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았다.  
→ ‘막(ㅁ)’에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한다.





11

1.  ㉠ 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 조선 시대의 세종이 만든 우리나라의 글자이다.
2. 대상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방법을  ㉡ 이라고 한다. 한자와 훈민정음은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3.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을  ㉢ 이라고 한다.  
향찰, 이두, 구결 등이 있다.
4.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를  ㉣ 라고 한다.  
한글, 로마자 등이 해당된다.
5. ‘깡충깡충’은 가벼운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끼리, ‘깹충깹충’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음성 모음끼리 쓰였다. 이처럼  ㉤ 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다.

## ‘되’와 ‘돼’가 헷갈려요!

한글 맞춤법은 봐도 봐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이 ‘되’와 ‘돼’의 구분이에요. 되, 돼, 되요, 돼요, 뒀, 뒀……. 어떨 때 ‘되’를 쓰고 어떨 때 ‘돼’를 써야하는 걸까요?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쏭달쏭할 때는 ‘돼’ 대신에 ‘되어’를 넣어보면 됩니다. 그는 선생님이 됐어/됐어. 둘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선생님이 ‘되었어’가 자연스럽게 때문에 ‘됐’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는 ‘되/돼’ 대신에 ‘하/해’를 넣어보면 됩니다. ‘됐어(했어)’와 ‘됐어(했어)’ 중에서는 ‘했어’가 익숙하죠? 이럴 때는 ‘됐어’가 정답이랍니다.





# 4 의사소통

## 01. 읽기와 쓰기

## 02. 듣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서로 표현하며 통하는 것을 말한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절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필요하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말할 때도 의사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을 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보자.



# 01 읽기와 쓰기

4

의사소통

01. 읽기와 쓰기

## 작문 [중]

- 북 글짓기
- 중 作文 (zuò wén)

[作文] 글을 짓는 것.

· **작문**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때, 연구 후에 보고서를 쓸 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국어 선생님께서 **작문** 숙제를 내주셨다.

## 정의 [중]

- 북 정의
- 중 定义 (dìng yì)

[定義] 단어나 사건 등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 놓은 것.

· **정의**는 '~는 ~이다.'의 문장 구조로 쓴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Tip

단어를 정의하는 방법은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

## 묘사 [중]

- 북 묘사
- 중 描写 (miáo xiě)

[描寫] 사물의 모습이나 상황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

· 소설에서 **묘사**는 인물을 설명할 때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직접 묘사와 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설명하는 간접 묘사로 나뉜다.



놀부의 심술궂은 성격 묘사

- 직접 묘사: 놀부는 심보가 고약하다.
- 간접 묘사: 놀부는 까치를 일부러 괴롭혀서 다리를 부러뜨렸다.



분류

한옥의 구조(분석)

과일

꽃

바나나

장미

사과

백합

지붕

처마

기둥

서까래

분류와 분석

## 분류

- 북 분류  
중 分类 (fēn lèi)

[分類] 여러 가지가 섞인 가운데 종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나누는 것.

- 바나나, 백합, 사과, 장미가 있을 때, 바나나와 사과는 ‘과일’로, 백합과 장미는 ‘꽃’이라는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분석

- 북 분석  
중 分析 (fēn xī)

[分析]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 한옥을 지붕, 서까래, 처마, 기둥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 분석의 방법에는 항목별로 나누는 것과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나누는 것이 있다.
- 움직이지 않는 대상은 항목별로 나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진행 순서에 따라 나눈다.

- 항목별로 나누기의 예:  
곤충의 구조는 머리, 가슴, 배로 분석할 수 있다.
-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나누기의 예:  
라면 끓이는 방법 분석  
물과 면을 넣음 → 스프를 넣음 → 3분간 끓임 → 완성



## 비교

- 북 비교  
중 比较 (bǐ jiào)

[比較] 둘 이상의 대상에서 서로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것.

## 대조

- 북 대조  
중 对照 (duì zhào)

[對照] 둘 이상의 대상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는 것.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것과 견주어 **비교**하거나 **대조**하면 특징이 쉽게 드러나서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 비교:  
고양이와 강아지는 둘 다 매우 귀여운 애완동물이다.
- 대조: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지만 강아지는 별로 그렇지 않다.

## 유추

- 북 비교말하기  
중 类推 (lèi tuī)

[類推] 잘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다른 것 역시 그것과 비슷한 성질과 특징을 지녔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

- **유추**는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 마라톤이 오랜 시간을 꾸준히 뛰어야 하듯, 인생 역시 마라톤과 비슷하기 때문에 멀리 보아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부연 국

- 북 부연
- 중 附加说明 (fù jiā shuō míng)

논술 국

- 북 논술
- 중 论述文 (lùn shù wén)

비평 국

- 북 비평
- 중 评论 (píng lùn)

호평 국

- 북 호평
- 중 好评 (hǎo píng)

흑평 국

- 북 흑평
- 중 差评 (chà píng)

[敷衍/敷衍] 덧붙여서 자세히 말함.

- 논리적인 글은 자세히 쓰되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论述]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풀어 적는 방식.

- **논술**은 문제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지시문과 표, 기사 등을 포함하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논술을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구성을 사용한다.
- 논술문은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해야 하고 문제에서 정해 준 분량에 맞춰 써야 한다. 보통 300자에서 2000자 사이이다.



Tip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 시험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批评]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의 좋고 나쁨을 정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일.

- **비평**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고, 비평문이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문학 작품을 해석하려고 문학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비평의 일부이다.
- 좋게 평가하는 것을 **호평**, 반대로 모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흑평**이라 한다.

논평 국

- 북 논평
- 중 论评 (lùn píng)

논거 중

- 북 논거
- 중 论据 (lùn jù)

논증 중

- 북 논증
- 중 论证 (lùn zhèng)

근거 중

- 북 근거
- 중 根据 (gēn jù)

[論評] 여러 가지 사건이나 글 또는 말에 대해 논하고 비평함. 평론이라고도 함.

- **논평**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녹아있는 글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論據] 이론이나 논리, 논설의 근본이 되는 것.

- **논거**로는 사례, 통계 수치, 전문가의 입장 등 객관적인 사실을 사용한다.
- 통계나 사례를 논거로 들 때에는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 주장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論證]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논리적으로 밝힘.

- **논증**의 대상은 찬성과 반대 혹은 옳고 그름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문제이다.
- 논증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논증을 할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른 쟁점에 관한 주장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고, 주장의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아침 8시까지 학교에 와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논증할 수 있다.
-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 개인의 취향은 찬성과 반대, 혹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논증할 수 없다.

[根據]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

- **근거**는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 근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 근거의 개수가 많은 것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명제 [중]

- 북 명제
- 중 命题 (mìng tí)

[命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 명제는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쓴다.
- 내용이 항상 옳은 명제는 참이다.
-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옳지 않은 경우, 명제는 거짓이다.

- 고양이는 동물이다. (참인 명제)
- 물은 90°C에서 끓는다. (거짓인 명제)  
→ 물은 100°C에서 끓기 때문에 거짓이다.
-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 (명제가 아님)  
→ 프랑스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 문장의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다.

## 전제 [중]

- 북 전제
- 중 前提 (qián tí)

[前提] 명제를 세우기 전에 먼저 내세우는 명제.

- 전제는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이다.
- 전제에 오류가 있는 명제는 참이 될 수 없다.
- ‘사람은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가설 [중]

- 북 가설
- 중 假设 (jiǎ shè)

[假設] 어떤 사실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정한 가정.

- 가설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타당한 논증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다.
- 가설이 참으로 증명되면 정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 가설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다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로 돌아가서 증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 통념 [중]

- 북 통념
- 중 常理 (cháng lǐ)

[通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통하는 생각이나 지식.

- 통념이라고 해서 언제나 참은 아니다.
- 통념은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공감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데, 과도하게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해서 스스로 무력해지는 것이다.  
→ 이 글은 첫 문장에서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표제 [중]

- 북 제목
- 중 标题 (biāo tí)

### 부제 [중]

- 북 부제목
- 중 副标题 (fù biāo tí)

[標題/表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큰 제목.

- 표제는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짧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표제는 명사형으로 간결하게 쓴다.
- 신문에 실리는 기사문에서 큰 글씨로 쓰인 제목이 표제이다.
- 부제는 표제를 쓴 후 글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한 작은 제목이다.

### 표제

### 부제

#### 글동무 단어통 발간

인문사회편은 국어와 사회 교과서 단어로 이루어져

문장을 이루는 단어를 정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어와 사회 교과서의 단어를 정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어와 사회 교과서의 단어를 정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본 교재 국어 책이 단어가 많이 나오므로, 이 책을 읽고 국어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참고하여 단어를 정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어와 사회 교과서의 단어를 정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 서론 [중]

- 북 머리말
- 중引言(yǐn yán)

### [序論/緒論] 글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

- **서론**에서는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자 하는 문제를 밝히고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을 설명한다.
- 읽는 이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짧은 이야기를 넣거나 질문을 던진다.
- 앞으로 말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몇 문장으로 표현해 주면 글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다.

## 본론 [중]

- 북 본론
- 중本文(běn wén)

### [本論] 글쓴이의 주장이 있는 부분.

- **본론**은 글의 중심 부분으로, 주장과 근거가 담긴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한다.
-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글쓴이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서론이나 결론보다 길게 쓴다.

## 결론 [중]

- 북 맺는말
- 중结论(jié lùn)

### [結論]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글의 마지막 부분.

-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작성한다.
- 결론에는 갑자기 글의 전체적인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 두괄식 [고]

- 중首括式(shǒu kuà shì)

### [頭括式] 글의 처음에 중심 내용이 오는 구성 방식.

- **두괄식** 구성은 읽는 이가 중심 내용을 빨리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이나 논설문에 적절하다.
- 중심 내용을 빨리 전달해야 하는 신문에 두괄식 구성을 자주 사용한다.



#### Tip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좋다.

## 미괄식 [고]

- 중尾括式(wěi kuà shì)

### [尾括式] 글의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구성 방식.

- **미괄식** 구성은 자신의 논지를 길게 설명한 후에 주제를 문단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방식이다.
- 미괄식 구성을 사용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며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미괄식은 길고 자세한 설명을 쓰면 글이 지루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브레인스토밍 [중]

- 중个人头脑风暴法(gè rén tóu nǎo fēng bào fǎ)

### [brainstorming] 자유롭게 생각해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활동.

-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생각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이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을 때 브레인스토밍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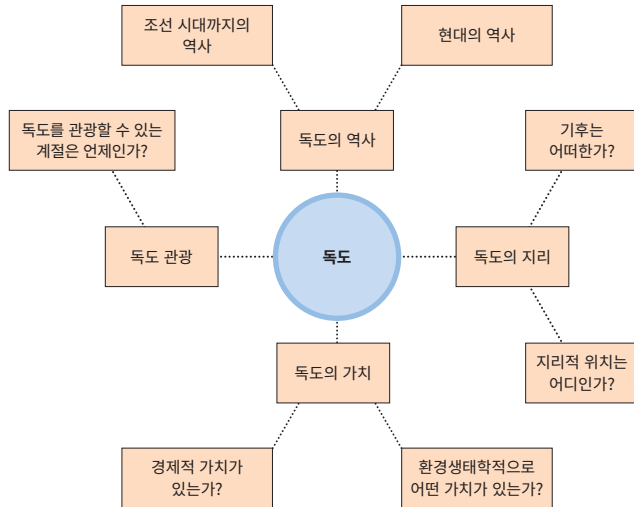


## 마인드맵 중

중 思维导图 (sī wéi dào tú)

[mind map] 자신의 생각을 지도를 그리듯이 그림이나 표로 표현한 것. 생각 지도라고도 함.

- **마인드맵**은 브레인스토밍의 방법 중 하나이다.
- 중심에서 시작하여 나뭇가지를 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이나 짧은 글로 차례차례 표시한다.
-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생각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고, 문단별로 체계를 세울 때도 도움이 된다.



독도에 대한 글쓰기 마인드 맵

## 소재 중

북 소재  
중 素材 (sù cái)

### 제재 중

북 제재  
중 题材 (tí cái)

[素材] 글의 내용이 되는 자료. 글감이라고도 함.

-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글쓰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
- 좋은 소재는 다양한 독서 경험이나 체험에서 나온다.
- 소재 중에서도 특히 글의 중심으로 선택된 재료를 **제재**라 한다.
- 제재에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덧붙이면 주제가 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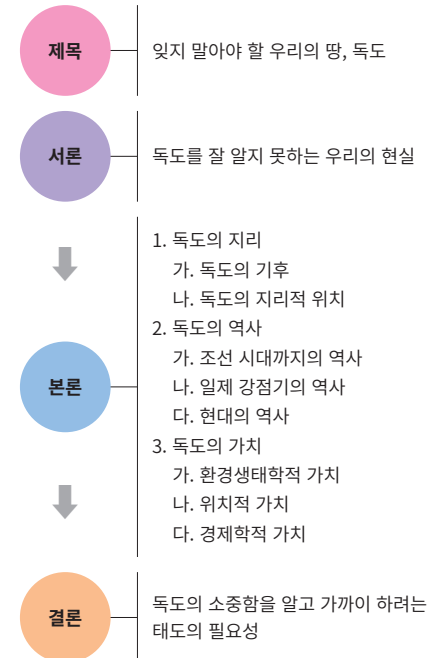
소재 중에서 주제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은 글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

## 개요 중

북 개요  
중 概要 (gài yào)

[概要] 글쓰기 전에 간단하게 추려 쓴 주요 내용.

- **개요**는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글의 뼈대이다.
-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간단한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 개요를 짤 때는 글의 전체적인 분량과 문단 수를 정하고, 제목을 생각해본다.



개요 예시



## 초고 ㉔

- 북 초고
- 중 初稿 (chū gǎo)

## 퇴고 ㉔

- 북 퇴고
- 중 修改稿件 (xiū gǎi gǎo jiàn)

## 정독 ㉔

- 북 정독, 새겨읽기
- 중 精读 (jīng dú)

## 속독 ㉔

- 북 속독
- 중 速读 (sù dú)

## 인용 ㉔

- 북 인용
- 중 引用 (yǐn yòng)

### [草稿] 처음으로 써서 아직 고치지 않은 글.

-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기란 어렵다. 미리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먼저 써본 후에 다시 읽어보며 고쳐쓰기를 반복해야 한다.
- 이때, 처음 써서 나중에 고쳐 써야 할 글을 **초고**, 초고를 고치는 일을 **퇴고**라 한다.



#### Tip

초고라 하더라도 글의 일부만을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써보는 것이 좋다.

### [精讀] 글을 천천히, 자세히 읽는 것.

- **정독**이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며 책을 읽는 것이다.
- 정독을 하면 읽는 속도는 느리지만 글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분석하기 좋다.
- **속독**은 글의 중심 내용만 파악하기 위해 빠르게 읽는 것이다.
- 속독하면 많은 책을 금세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 [引用]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한 부분을 끌어다 쓰는 것.

-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서 쓰는 것이므로 꼭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 인용하는 문장의 시작과 끝에 큰 따옴표(“ ”)나 작은 따옴표(‘ ’)를 붙인다.

## 직접 화법 ㉔

- 북 바로옮기기
- 중 直接引用 (zhí jiē yǐn yòng)

### [直接話法] 문장이나 대화에서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하기 방법.

- 소설에서 **직접 화법**을 쓰는 경우는 큰 따옴표(“ ”)를 사용하고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라고’ 또는 ‘-하고’를 사용한다.
- 직접 화법을 사용하면 생생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는 “밖에 비가 와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책이 많이 어렵니?”**하고** 물었다.

## 간접 화법 ㉔

- 북 간접담화법
- 중 间接引用 (jiàn jiē yǐn yòng)

### [間接話法] 문장이나 대화에서 남이 한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전하는 말하기 방법.

- **간접 화법**은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와 쓰인다.
- 간접 화법은 큰 따옴표(“ ”)를 사용하지 않고 평서문 종결 어미 ‘-다’로 마치며, 높임말, 대명사, 날짜 등이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바뀐다.

그는 밖에 비가 온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책이 많이 어렵나**고** 물었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 ① 란 ‘~는 ~이다’의 문장 구조로 쓰며, 단어나 사건 등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 놓은 것이다.
- 둘 이상의 대상에서 서로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것을 ②, 서로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을 ③ 라고 한다.
-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의 좋고 나쁨을 정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일을 ④ 이라고 한다.
- 이론이나 논리, 논설의 근거인 ⑤ 를 제시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⑥ 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통하는 생각이나 지식으로, 문화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
- 논술문의 구조는 ⑦, 본론, 결론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 자신의 생각을 지도를 그리듯이 그림이나 표로 표현한 것을 ⑧, 또는 생각 지도라고 한다.

복습하기 ⑧ 글자 ① 글자 ② 글자 ③ 글자 ④ 글자 ⑤ 글자 ⑥ 글자 ⑦ 글자 ⑧ 글자

## 02 듣기와 말하기

4

의사소통

02. 듣기와 말하기

### 준언어적 표현

중 伴随语言表达  
(bàn suí yǔ yán biǎo dá)

[準言語的表現]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의 높낮이,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같은 것.

-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말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다.
- ‘큰 목소리로 빠르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등은 모두 준언어적 표현이다.
- 연극을 하는 배우들은 준언어적인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한다.

### 비언어적 표현

중 非語言性表达  
(fēi yǔ yán xìng biǎo dá)

[非言語的表現] 의사소통 할 때 사용하는 몸짓, 시선, 자세, 태도 등 언어가 아닌 것.

-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다.
- 비언어적 표현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언어적 표현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최고’라는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손짓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Tip

외국에서 말이 안 통할 때 비언어적 표현인 몸짓을 사용해 대화할 수 있다.



## 토의 [중]

- 북 토의
- 중 商讨 (shāng tǎo)

[討議]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서로 말하는 것.

- 토의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도록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Tip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의견을 말하는 것은 토론,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말하는 것은 토의이다.

## 회의 [중]

- 북 회의
- 중 会议 (huì yì)

[會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럿이서 모여 의논하는 과정, 또는 그 모임.

- 회의는 가장 일반적인 토의의 형태이다.
- 회의의 참여자는 의장, 서기,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 토론 [중]

- 북 토론
- 중 讨论 (tǎo lùn)

[討論]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서 서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

- 토론을 하는 사람 수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토론에는 보통 말하기 순서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
- 토론하는 양쪽은 반드시 의견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 토론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 쟁점 [중]

- 북 쟁점
- 중 争论点 (zhēng lùn diǎn)

[爭點]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투고자 하는 문제.

- 토론에서의 쟁점은 단어의 정확한 뜻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한다.
-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본다.
- 쟁점에서 벗어난 근거나 주장은 피해야 한다.

## 논제 [중]

- 북 논제
- 중 论题 (lùn tí)

[論題] 토론의 주제가 되는 문제.

- 논제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뉜다.
-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 논제이다.
-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가치 논제이다.
- 어떤 정책을 실행할지 여부와, 실행 방법은 어떻게 할지 주장하는 논제가 정책 논제이다.
-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는 주제가 좋으며, ‘~해야 한다’ 혹은 ‘~이다’처럼 긍정적인 문장을 취한다.



## 반론 ㉠

- 북 반론
- 중 反对意见 (fǎn duì yì jiàn)

[反論] 근거나 증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대하여 말하는 것.

- 반론의 근거는 상대방과 듣는 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 반론은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의 약점과 허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을 힘 있게 하는 단계이다.

## 담화 ㉠

- 북 담화
- 중 谈话 (tán huà)

[談話]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또는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이야기라고도 함.

- 담화는 화자, 청자,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 담화의 상황 등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
- 담화에는 정보 전달, 선언, 약속, 명령, 축하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화자와 청자

## 화자 ㉠

- 북 화자
- 중 讲话者 (jiǎng huà zhě)

[話者] 말하는 사람.

- 화자란 대화의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에서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말을 하는 사람도 화자라고 한다.
- 하나의 문학 작품에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

## 청자 ㉠

- 북 청자
- 중 听者 (tīng zhě)

[聽者] 듣는 사람.

- 청자는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 편지글의 형식이나, 대화 형식의 시에서 청자를 찾아볼 수 있다.



## 화제 [중]

- 북 화제
- 중 话题 (huà tí)

[話題] 이야기거리. 말을 할 때의 내용.

- 화제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야기하는 주제이다.
- 화제는 대화를 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
-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황과 목적에 맞고, 서로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을 화제로 선택한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것을 화제로 꺼낼지 고민된다.

## 청중 [중]

- 북 청중
- 중 听众 (tīng zhòng)

[聽衆] 강연이나 연설 등을 듣고 있는 사람들.

- 발표를 할 때에는 청중들의 수준이나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이라도 청중에 따라 언어의 수준을 조절하거나, 적절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 토론의 청중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Tip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표 중간에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다.



## 협상 [중]

- 북 협상
- 중 協商 (xié shāng)

[協商]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사이에 주장이 달라서 생긴 갈등을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며 해결하는 것.

- 협상에 앞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
- 협상을 할 때는 양쪽 모두에게 최선인 해결책을 찾는다.



## 타협 [중]

- 북 타협
- 중 妥協 (tuǒ xié)

[妥協] 서로 양보해서 결정하는 것.

- 타협은 바라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때 조금씩 물러나서 타협하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조정 [중]

- 북 조정
- 중 調整 (tiáo zhěng)

[調停] 협상의 단계 중 하나로, 서로의 문제를 확인한 후에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

-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조정을 할 때는 자신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 당사자끼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기도 한다.

+

제삼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 즉 갈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 합의

복 합의  
중 协议 (xié yì)

[合意]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최선의 의견이나 해결책.

-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 중에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골라야 한다.
- 협상이 끝난 후 서로 합의한 내용은 지켜야 한다.
- 합의를 본 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협상 단계를 거칠 수 있다.



## 제안

복 제안  
중 提议 (tí yì)

[提案] 일을 더 좋게 해결하려고 낸 의견.

- 토론을 할 때는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지만, 토의할 때는 서로 의견을 내놓는 **제안**을 한다.
- 제안을 할 때는 제안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제안할 때는 '~합시다'나 '~하면 어떨까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대안

복 대안  
중 对策 (duì cè)

[代案] 원래의 것을 대신해서 다시 제안한 의견.

- 상대방의 제안이나 **대안**을 제대로 평가하고 상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목표를 정한 후에 대안을 마련한다.
- 여러 대안을 수정한 후에 그 중에서 해결책을 고른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1.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몸짓, 시선, 자세, 태도와 같이 언어가 아닌 것을  ① 이라고 한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2.  ② 은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서 서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3. 근거나 증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대하며 말하는 것을  ③ 이라고 한다.
4.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을  ④ ,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한다.
5.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사이에 주장이 달라서 생긴 갈등을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며 해결하는 것은  ⑤ 이다.

원래 ⑤ 交涉 ① 글썽 ② 글썽 ③ 글썽 ④ 글썽 ⑤ 글썽



# 5 한자 성어

## 01. 한자 성어

한자 성어는 옛이야기에서 전해진 말로, 비유적인 내용을 짧은 말로 나타내는 글이다. 보통 네 글자로 이루어져 사자 성어라고도 한다. 한자 성어에는 옛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삶의 교훈이 녹아 있다. 일상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한자 성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 01 한자 성어

5

한자 성어

01. 한자 성어

## 고진감래 困

- 북 고진감래
- 중 苦尽甘来 (kǔ jìn gān lái)

[苦盡甘來] 쓴 것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 **고진감래**는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올 것이라는 뜻이다.
- 苦 쓸 고, 盡 다할 진, 甘 달 감, 來 올 래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성공했네! 그야말로 **고진감래**야.

+

비슷한 표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과유불급 困

- 북 과유불급
- 중 过犹不及 (guò yóu bù jí)

[過猶不及]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

-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는 뜻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 過 지나칠 과, 猶 오히려 유, 不 아닐 불, 及 미칠 급

· **과유불급**이라고, 시험 때문에 밤을 새우다가는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 적당한 비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비는 홍수를 불러일으켜 해를 입힌다. 이러한 상황을 **과유불급**이라 한다.

## 권선징악 困

- 북 권선징악
- 중 扬善惩恶 (yáng shàn chéng è)

[勸善懲惡] 착함을 권하고 악함을 벌한다는 뜻.

- **권선징악**은 한국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착한 자가 성공하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결말을 뜻한다.

- 勸 권할 권, 善 착할 선, 懲 징계할 징, 惡 악할 악

흥부놀부 이야기의 주제는 착한 흥부가 복을 받고 악한 놀부가 벌을 받는 **권선징악**이다.



## 근묵자흑 [국]

- 북 근묵자흑
- 중 近墨者黑 (jìn mò zhě hēi)

[近墨者黑] 빛깔이 검은 먹을 가까이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

- 근묵자흑은 나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나쁜 버릇이 생기듯, 사람은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아 변한다는 뜻이다.
- 近 가까이 올 근, 墨 먹 묵, 者 사람 자, 黑 검은 흑

근묵자흑이라고, 매일 지각하는 친구랑 어울리더니 너까지 지각하는구나.

## 금시초문 [국]

- 북 금시초문
- 중 闻所未闻 (wén suǒ wèi wén)

[今始初聞/今時初聞] 이제야 처음으로 듣는다는 뜻.

- 今 이제 금, 時 때 시, 初 처음 초, 聞 들을 문

숙제가 있었다고?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야.

## 금의환향 [국]

- 북 금의환향
- 중 衣锦还乡 (yī jǐn huán xiāng)

[錦衣還鄉] 원하던 바를 이루고 성공하여 비단옷처럼 좋은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

- 錦 비단 금, 衣 옷 의, 還 돌아올 환, 鄉 고향 향

- 2년 전 미국에 간 언니는 사업에 성공해 금의환향했다.
- 금의환향을 약속하고 마을을 떠난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소식이 없었다.

## 노심초사 [국]

- 북 노심초사
- 중 苦思焦慮 (kǔ sī jiāo lǜ)

[勞心焦思] 매우 마음을 쓰거나 깊게 생각하며 초조하게 애타운다는 뜻.

- 勞 근심 로, 心 마음 심, 焦 애타울 초, 思 생각할 사

그는 합격 발표가 언제쯤 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

비슷한 표현: 전전긍긍(戰戰兢兢) 매우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하다.

## 득의양양 [국]

- 북 의기양양
- 중 得意洋洋 (dé yì yáng yáng)

[得意揚揚]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우쭐거리며 뽐낸다는 뜻.

- 得 얻을 득, 意 뜻 의, 揚 떨칠 양, 揚 떨칠 양

그녀는 수학 시험을 잘 봐서 득의양양했다.

## 만장일치 [국]

- 북 만장일치
- 중 意見一致 (yì jiàn yí zhì)

[滿場一致] 모인 사람의 뜻이 모두 완전히 같음을 나타내는 뜻.

- 滿 가득 찰 만, 場 마당 장, 一 한 일, 致 도달할 치

우리 반의 새로운 규칙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반신반의 [국]

- 북 반신반의
- 중 半信半疑 (bàn xìn bàn yí)

[半信半疑]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뜻.

- 반신반의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를 뜻한다.
- 半 반 반, 信 믿을 신, 半 반 반, 疑 의심할 의

그는 친구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고민했다.

## 사상누각 [국]

- 북 사상루각
- 중 空中樓閣 (kōng zhōng lóu gé)

[沙上樓閣]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말로, 기초가 약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너진다는 뜻.

- 沙 모래 사, 上 위 상, 樓 다락 루, 閣 집 각

건물을 지을 때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

누각이란 높게 지은 집의 한 종류이다.



## 사필귀정 ㉠

- 북 사필귀정  
중 事必归正 (shì bì guī zhèng)

[事必歸正]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

- **사필귀정**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로 잡힌다는 뜻이다.
- 事 일 사, 必 반드시 필, 歸 돌아갈 귀, 正 바를 정

흥부를 괴롭히면서도 부자로 살았던 놀부가 마지막에 벌을 받는 건 당연해. **사필귀정**이라잖아.

+

비슷한 표현: 인과응보(因果應報) 원인과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 삼고초려 ㉠

- 북 삼고초려  
중 三顾草庐 (sān gù cǎo lú)

[三顧草廬] 오두막을 세 번이나 찾아간다는 말로, 뛰어난 인재를 얻으려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

- **삼고초려**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그의 오두막을 찾아간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유비의 정성에 감동해 제갈공명은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 三 석 삼, 顧 돌아볼 고, 草 풀 초, 廬 오두막 러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와야지.

## 상전벽해 ㉠

- 북 상전벽해  
중 天翻覆地 (tiān fān fù dì)

[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할 만큼 세상이 몰라보게 변했다는 뜻.

- 桑 뽕나무 상, 田 밭 전, 碧 푸를 벽, 海 바다 해

그 많던 나무들이 사라지고 아파트만 있더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 새옹지마 ㉠

- 북 새옹지마  
중 塞翁失马 (sài wēng shī mǎ)

[塞翁之馬]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로, 세상일의 좋고 나쁨은 미리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

- **새옹지마**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인간사(人間事)~’, ‘인생지사(人生之事)~’ 등과 함께 쓰여서 인생이 미리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 塞 변방 새, 翁 늙은이 옹, 之 어조사 지, 馬 말 마

면접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지사 **새옹지마**라잖아.

## 설상가상 ㉠

- 북 설상가상  
중 雪上加霜 (xuě shàng jiā shuāng)

[雪上加霜] 눈 위에 내린 서리라는 말로, 어려운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

- 雪 눈 설, 上 위 상, 加 더할 가, 霜 서리 상

늦잠을 잤는데 **설상가상**으로 버스까지 놓쳐 버렸다.

+

비슷한 표현: 앞친 데 덮친 격

## 안빈낙도 ㉠

- 북 자기만족  
중 安贫乐道 (ān pín lè dào)

[安貧樂道]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뜻.

- **안빈낙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찾으려 하고 도와 덕을 쌓는 옛 선비의 정신이다. 고전 문학에서 글쓴이의 삶의 태도로 주로 등장한다.
- 가난하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태도를 뜻한다.
- 安 편안할 안, 貧 가난할 빈, 樂 즐길 낙, 道 길 도

선비들은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안빈낙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

비슷한 표현: 안분지족(安分知足)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 역지사지 回

- 북 역지사지
- 중 换位思考 (huàn wèi sī kǎo)

[易地思之] 입장을 바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

· 易 바꿀 역, 地 땅 지, 思 생각할 사, 之 어조사 지

동생에게 화만 내지 말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

## 오매불망 回

- 북 오매불망
- 중 梦寐以求 (mèng mèi yǐ qiú)

[寤寐不忘]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

· **오매불망**은 그리운 대상을 기다릴 때 쓰는 말이다.

· 寤 깰 오, 寐 잘 매, 不 아닐 불, 忘 잊을 망

- 그는 혼자 남아서 멀리 떠난 연인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 문학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

비슷한 표현: 전전반측(輾轉反側) 그리움이나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 오비이락 回

- 북 오비이락
- 중 因偶然事件受嫌疑 (yīn ǒu rán shì jiàn shòu xián yí)

[烏飛梨落]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말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오해를 받게 된다는 뜻.

· 烏 까마귀 오, 飛 날 비, 梨 배나무 이, 落 떨어질 락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람 때문에 문이 광 닫혔는데, 엄마는 일부러 세게 닫았다고 오해하시는 거 있지? 완전 **오비이락**이었어.

+

비슷한 표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온고지신 回

- 북 온고지신
- 중 温故知新 (wēn gù zhī xīn)

[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

- **온고지신**은 옛 전통의 좋은 점을 이어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溫 익힐 온, 故 옛 고, 知 알 지, 新 새 신

한복을 이용해 새로운 옷을 만드는 **온고지신**의 정신이 유행하고 있다.

## 이심전심 回

- 북 이심전심
- 중 心心相印 (xīn xīn xiāng yìn)

[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뜻.

- **이심전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 때 쓰는 말이다.
- 말로 전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뜻일 때 사용한다.
- 이 써 이, 心 마음 심, 傳 전할 전, 心 마음 심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와는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잘 통한다.

## 임기응변 回

- 북 임기응변
- 중 随机应变 (suí jī yìng biàn)

[臨機應變] 갑자기 일어난 뜻밖의 문제를 그때그때 알맞게 처리한다는 뜻.

· 臨 임할 임, 機 기미 기, 應 응할 응, 變 변할 변

-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왔지만 **임기응변**으로 대답했다.
- 용왕 앞에 선 토끼는 자신의 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임기응변**으로 빠져나왔다.



## 자업자득 [국]

- 북 자업자득  
중 自作自受 (zì zuò zì shòu)

[自業自得]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뜻.

- **자업자득**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쓰인다.
- 自 스스로 자, 業 업 업, 自 스스로 자, 得 얻을 득

공부 안 하고 놀더니 결국 시험을 망쳤다고?  
**자업자득**이지, 뭐.

+

비슷한 표현: 뿌린 대로 거둔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곤란해 진다는 말.

## 적반하장 [국]

- 북 적반하장  
중 賊喊捉賊 (zéi hǎn zhuō zéi)

[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말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탓할 때 쓰는 말.

- **적반하장**은 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형태로 사용하며,  
유분수란 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 賊 도둑 적, 反 되돌릴 반, 荷 멜 하, 杖 몽둥이 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거야?

+

비슷한 표현: 방귀 권 놔 성낸다.

## 주마간산 [국]

- 북 주마간산  
중 走马观花 (zǒu mǎ guān huā)

[走馬看山]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구경한다는  
말로, 사물을 대충 훑어본다는 뜻.

- **주마간산**은 사물의 겉만 살피고 내용이나 참된 모습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走 달릴 주, 馬 말 마, 看 볼 간, 山 외 산

**주마간산**으로 살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

비슷한 표현: 수박 겉 핥기

## 진퇴양난 [국]

- 북 진퇴양난  
중 进退两难 (jìn tuì liǎng nán)

[進退兩難] 나아가지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태.

- 進 나아갈 진, 退 물러설 퇴, 兩 두 량, 難 어려울 난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 타산지석 [국]

- 북 타산지석  
중 他山之石 (tā shān zhī shí)

[他山之石] 다른 산의 돌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뜻.

-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나쁜 돌도 나의 옥(玉)을 갈고  
다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 他 다를 타, 山 외 산, 之 어조사 지, 石 돌 석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타산지석**이라고, 네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

비슷한 표현: 반면교사(反面教師)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 표리부동 [국]

- 북 표리부동  
중 表里不一 (biǎo lǐ bú yī)

[表裏不同] 겉과 속이 다를 나타내는 말.

- **표리부동**은 ‘표리부동한 인간’, ‘표리부동한 행동’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한다.
- 表 겉 표, 裏 속 리, 不 아닐 부, 同 같을 동

그 사람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표리부동**한 인간이야.

+

반대말: 표리일체(表裏一體) 겉과 속이 같다.





## 복습하기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 ① 는 쓴 것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다.
- 한국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착한 자가 성공하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결말을 ② 이라고 한다.
- ③ 은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인과응보’가 있다.
- ④ 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생이 미리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옛 선비의 정신을 ⑤ 라고 한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태도이다.
- 말로 전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는 것을 ⑥ 이라고 한다.
- ⑦ 은 나아가지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것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⑧ 한 사람이라고 한다.

음슴지마 ⑧ 귀옹노인 ①

문득문득 ⑨ 5년전 ⑤ 10년전 ⑦ 10년전 ⑥ 10년전 ② 10년전 ① ④

## 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새옹지마’는 새옹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쓰이는 이 한자성어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국경 주변 지역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도망쳤던 말이 암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자, 노인은 다시 “이게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지만, 아들은 그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난 나쁜 일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훌훌 털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찾아보기(남)

0-9		관형사	77	대명사	74
1인칭 관찰자 시점	42	관형어	108	대사	47
1인칭 주인공 시점	42	구개음화	100	대안	154
3인칭 관찰자 시점	43	구비 문학	65	대유법	21
ㄱ-ㄴ		구어체	40	대조	135
가사	56	군담 소설	63	도치법	19
가설	138	권선징악	157	독립 성분	109
가전체	68	근거	137	독립어	109
가획	126	근목자학	158	독립언	78
간접 화법	145	금시초문	158	독백	47
갈등	45	금의환향	158	동사	76
감탄문	114	기승전결	39	동음이의어	88
감탄사	78	기행문	49	동의어	87
개성적 인물	44	낙관적	25	된소리	93
개요	143	내재적 관점	49	된소리되기	98
객관적 상관물	32	내적 갈등	45	두괄식	140
객체 높임법	116	냉소적	26	두음 법칙	96
거센소리	93	노심초사	158	득의양양	159
거센소리되기	102	논거	137	로마자 표기법	122
격식체	117	논술	136	ㄴ	
결론	140	논제	149	마인드맵	142
결말	36	논증	137	마찰음	92
검문장	110	논평	137	만장일치	159
경기체가	54	능동	120	맞춤법	94
고려 가요	53	ㄷ-ㄹ		매개체	31
고유어	82	다의어	89	명령문	113
고진감래	157	단막극	47	명사	74
과유불급	157	단일어	82	명제	138
관계언	75	담화	150	모음 동화	101
관조적	26	대구법	18	모음 조화	128

찾아보기(남)

모음 탈락	104	분류	134	설의법	20
목적어	108	분석	134	설화	65
묘사	133	브레인스토밍	141	성조	129
문어체	40	비격식체	117	성찰적	27
몰아일체	61	비관적	27	소설	35
미괄식	141	비교	135	소설의 구성	36
민담	65	비속어	83	소재	142
민요	56	비언어적 표현	147	속독	144
ㅁ		비음	93	수미상관 구조	30
반론	150	비음화	99	수사	74
반신반의	159	비평	136	수사법	16
반어법	19	ㄷ		수식언	78
반의어	86	사동	119	수필	48
발단	36	사상누각	159	시	14
방백	47	사설시조	58	시나리오	48
방언	85	사잇소리 현상	105	시어	31
방점	129	사필귀정	160	시적 허용	23
병서	126	산문	35	시점	41
병치	23	삼고초려	160	시제	118
보어	108	상대 높임법	117	시조	57
보조관념	20	상전벽해	160	신화	65
복선	39	상형	124	심상	29
복합어	82	새옹지마	161	ㅇ	
본론	140	서론	140	약장	56
부사	78	서사시	15	안빈낙도	161
부사어	109	서술어	107	안울림소리	92
부속 성분	108	서정시	15	안은문장	110
부연	136	선경후정	30	액자식 구성	38
부정 표현	121	설(說)	69	어간	79
부제	139	설상가상	161	어근	80



찾아보기(남)

어미	80	위기	36	자업자득	164
어조	25	유음	93	자유시	15
에피소드	37	유음화	99	자음 동화	99
여음	57	유의어	86	자음 탈락	103
역설법	18	유추	135	자조적	28
역지사지	162	은어	84	작문	133
연군지정	60	은유법	21	쟁점	149
연시조	59	음보율	13	-적	25
연음 법칙	96	음수율	14	적반하장	164
열거법	16	음운	95	적층 문학	65
영웅 소설	63	음운 교체	97	전(傳)	69
영탄법	17	음운 첨가	104	전개	36
예사소리	93	음운 축약	101	전기문	48
예찬적	27	음운 탈락	102	전기적 요소	64
오매불망	162	음절	96	전설	65
오비이락	162	음절의 끝소리 규칙	97	전제	138
은고지신	163	의문문	113	전지적 작가 시점	43
음니버스식 구성	37	의성어	24	전형적 인물	44
외래어	83	의식의 흐름 기법	39	절정	36
외래어 표기법	122	의인법	21	점층법	17
외재적 관점	50	의태어	24	접사	81
외적 갈등	45	이심전심	163	정독	144
용언	77	이어진문장	111	정의	133
우국충절	60	이체자	126	정형시	15
우연성	64	인물	44	제안	154
우의적 표현	33	인용	144	제재	142
운문	13	일대기적 구성	37	조사	75
운율	13	임기응변	163	조음 위치	91
울림소리	93	임체적 인물	44	조정	153
원관념	20			종장	57

찾아보기(남)

주객전도	32	통념	139	향가	55
주동	119	퇴고	144	향유층	61
주마간산	164			협상	153
주성분	107	파생어	82	형용사	76
주어	107	파열음	92	형태소	79
주체 높임법	115	파찰음	92	호평	136
준언어적 표현	147	판소리	66	흑령	136
중세 국어	128	패러디	38	흘문장	110
중의적 표현	33	편집자적 논평	64	화자	151
중장	57	평론	49	화제	152
지시문	47	평면적 인물	44	환몽 구조	38
직유법	20	평서문	112	활용	81
직접 화법	145	평시조	58	활유법	22
전퇴양난	165	표리부동	165	회의	148
		표음 문자	127	회의적	26
차자 표기법	127	표의 문자	127	훈민정음	125
창제	125	표제	139	희곡	46
청유문	114	표준어	84	희화화	68
청자	151	품사	73		
청중	152	품자	68		
체념적	26	피동	120		
체언	75				
초고	144	한	28		
초장	57	한시	56		
치환	22	한자어	83		
타산지석	165	함축	31		
타협	153	합성어	82		
탈출	67	합의	154		
토론	148	해설	47		
토의	148	해학	67		



찾아보기(북)

ㄱ-ㄴ					
가사	56	금시초문	158	략관적	25
가설	138	금의환향	158	랭대적	26
간접담화법	145	기승전결	39	련시조	59
갈등	45	기행문	49	련음법칙	96
감탄문	114	느낌법	17	렬거법	16
감탄사	78	능동	120	레찬적	27
개성적인물	44	ㄷ-ㄹ		로마글자 표기법	122
개요	143	다의어	89	로심초사	158
거센소리	93	단막극	47	론거	137
거센소리되기	102	단일문	110	론술	136
결말	36	담화	150	론제	149
경기체가	54	대구법	18	론증	137
고려가요	53	대명사	74	론평	137
고유어	82	대사	47	림기응변	163
고진감래	157	대안	154	림체적인물	44
과유불급	157	대조	135	ㄴ	
관조적	26	덧붙이	81	만장일치	159
관형사	77	독립어	109	말뿌리	80
관형어	108	독립언	78	말소리빠지기	102
구어체	40	독백	47	말줄기	79
구전문학	65	동사	76	말체	40
군담	63	동음어	88	맞춤법	94
군담소설	63	동의어	87	매개체	31
권선징악	157	원소리	93	맺는말	140
근거	137	원소리되기	98	머리말	140
근목자혹	158	두음법칙	96	명령문	113
글짓기	133	들어온 말	83	명사	74
글체	40	들어온 말 표기법	122	명제	138
		뜻글자	127	모양본딴말	24

찾아보기(북)

모음빠지기	104	분석	134	소리맞추기	91
모음조화	128	비관적	27	소리본딴말	24
묘사	133	비교	135	소설	35
무음소리	92	비교말하기	135	소재	142
문어체	40	비평	136	속독	144
문화어	84	ㄷ		속된 말	83
민담	65	사상루각	159	수미상접	30
민요	56	사실시조	58	수사	74
ㅁ		사이소리 현상	105	수사법	16
바로 옮기기	145	사투리	85	수식언	78
반대말	86	사필귀정	160	수필	48
반론	150	산문	35	순한소리	93
반성적	27	삼고초려	160	스침소리	92
반신반의	159	상전벽해	160	시	14
방백	47	상형	124	시간범주	118
방점	129	새겨읽기	144	시말	31
병렬	23	새옹지마	161	시어	31
병서	126	서사시	15	시점	41
보어	108	서술문	112	시조	57
복선	39	서술어	107	시킴문	113
복합문	110	서정시	15	시킴상	119
본론	140	선경후정	30	신화	65
부사	78	설	69	실마리	36
부사어	109	설상가상	161	심상	29
부성분	108	성조	129	ㅇ	
부연	136	소개	47	약장	56
부정 표현	121	소리교체	97	엑틀식 구성	38
부제목	139	소리글자	127	어미	80
분류	134	소리마디	96	어조	25



## 찾아보기(북)

여음	57	인용	144	조사	75
역지사지	162	일대기적	37	조정	153
영웅담	63	일화	37	종장	57
영화문학	48	입천장소리되기	100	주객전도	32
오매불망	162	ㅈ		주동	119
오비리락	162	자기만족	161	주마간산	164
은고지신	163	자리바꿈법	19	주성분	107
외딴성분	109	자업자득	164	주어	107
용언	77	자유시	15	중세국어	128
우국충정	60	자음빠지기	103	중장	57
우리글	125	자조적	28	지시문	47
우연성	64	쟁점	149	직유법	20
우의적표현	33	-적	25	직접보어	108
운률	13	적반하장	164	진퇴량난	165
운문	13	전	69	ㅈ - ㅉ	
울림소리	93	전개	36	차자 표기법	127
울림소리되기	99	전기문학	48	창제	125
위기	36	전기적요소	64	청자	151
은어	84	전설	65	청중	152
은유법	21	전제	138	체념적	26
음수률	14	전형적인물	44	체언	75
음운	95	절정	36	초고	144
음절의 끝소리규칙	97	점층법	17	초창	57
의기양양	159	정독	144	추김문	114
의문문	113	정의	133	치환	22
의인법	21	정형시	15	코소리	93
이심전심	163	제목	139	코소리되기	99
이야기	65	제안	154	타산지석	165
인물	44	제재	142	타협	153

## 찾아보기(북)

탈춤	67	형용사	76
터스침소리	92	형태소	79
터침소리	92	호평	136
토론	148	혹평	136
토의	148	화자	151
통념	139	화제	152
튀고	144	한몽구조	38
ㅈ - ㅉ		활용	81
파생어	82	회의	148
판소리	66	회의적	26
편집자적론평	64	획뎃붙이기	126
평론	49	희곡	46
평면적인물	44	희화화	68
평시조	58		
표리부동	165		
품사	73		
풍자	68		
피동	120		
한	28		
한시	56		
한자말	83		
합축	31		
합성어	82		
합의	154		
합친말	82		
해학	67		
향가	55		
향유자	61		
협상	153		



## 편집인

이지영 제예나

## 제일기획 신문화팀

박규식 장지은

## 자문위원

### 국어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박기범,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중국어 번역

박예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통역학과 재학

북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창홍,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통역학과 재학

## 북한어 번역

### 국어, 사회문화

정순화, 제원연구소 평화통일교육 강사

### 경제,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곽수진, 통일전담교육사

## 제작참여

### 국어

김소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김신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 경제, 사회문화

김민갑,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 생활과 윤리

윤선호,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재학

### 정치와 법

신혜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 학습용 일러스트 제공

### 비상교육

허보옥 공아름 소병업

## 글동무 단어통

## 인문사회편 국어

2018.12.19 초판발행

펴낸이 유정근

펴낸곳 제일기획

디자인 2x2

삽화 조성흠

일러스트 비상교육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2

내용 관련 문의 제일기획

전화 02-3780-2114

ISBN 978-89-966368-4-7

이 책에 실린 단어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글동무’ App을 다운받으신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 국내 최초 남·북한어·중국어 표기 학습용 단어집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



## 한 권으로 끝내는 과목별 기본 개념

중·고등학교 과목의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문과 그림 수록



## 책으로 만나는 내 손 안의 글동무

글동무 App에 이어 한 손에 쏙 들어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의 길잡이



9 788996 636847  
ISBN 978-89-966368-4-7  
ISBN 978-89-966368-3-0 (세트)

글동무 단어통은  국민중앙도서관 사립중앙도서관과

학습용 일러스트를 제공해주신 비상교육과 함께합니다.